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연변일보』 기사의 문체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洪 雅 琳

<한국어초록>

## 『연변일보』 기사의 문체 연구

홍 아 립

『연변일보』는 광복 후, 중국 조선족이 중국에서 최초로 간행한 조선어 신문으로 중국 동포신문 중 가장 큰 일간지이자 중국조선족 신문 가운데서 역사가 가장 오래 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이다. 지금까지 신문 문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내의 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 동포의 조선어 신문은 상대적으로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어로 된 한글 신문인 『연변일보』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다. 『연변일보』에서 쓰이는 언어는 단지 옛 조선반도의 한 방언으로서의 자료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해당 신문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영향과 간섭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 조선어와 중국어를 모어로 삼은 이중언어화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이중언어화자들의 언어 변천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과 북한에서는 중국어의 영향이 약화되는 추세인 것에 반해 조선어는 중국어의 영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또한 신문 기사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력은 신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그 문체적 특징을 각각 다르게 발달시켰으리라 추측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년의 『연변일보』를 중심으로 그 문체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표로 두고,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한국의 『조선일보』와 중국의 『인민일보』, 그리고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상을 제목, 전문, 본문 부분으로 세분화시켜 어휘, 표현, 문장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주요어:** 『연변일보』, 신문 기사문, 문체, 비교, 어휘, 표현, 문장

**학 번:** 2014-25237

#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1
1.2. 선행 연구.....	2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6
2. 신문기사의 구성 및 문체적 특성.....	9
2.1. 신문기사의 구성.....	9
2.1.1. 신문 기사의 뉴스 가치.....	9
2.1.2. 신문 기사의 구조.....	10
2.1.3. 신문 기사의 형식.....	10
2.1.4.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	11
2.2. 문어체 문어로서의 신문 문체.....	12
2.3. 소결.....	13
3. 『연변일보』의 문체적 특성.....	14
3.1. 제목.....	14
3.1.1. 제목의 구성과 표기.....	14
3.1.2. 표현 층위.....	22
3.1.3. 문장 층위.....	30
3.1.4. 소결.....	38
3.2. 전문.....	39
3.2.1. 표현 층위.....	40
3.2.2. 문장 층위.....	43

3.2.3. 소결.....	44
3.3. 본문.....	45
3.3.1. 어휘 층위.....	47
3.3.2. 표현 층위.....	54
3.3.3. 문장 층위.....	59
3.3.4. 소결.....	63
4. 결론.....	64
참고문헌.....	66
<中文摘要>.....	71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본고는 광복 후 중국에서 최초로 간행된 조선어 신문 『연변일보(延邊日報)』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문체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한국의 『조선일보(朝鮮日報)』와 중국의 『인민일보(人民日報)』<sup>1)</sup>, 그리고 북한의 『로동신문(勞動新聞)』<sup>2)</sup>을 함께 비교해 볼 것이다.

『연변일보』는 1948년 4월 1일에 ‘연변일보’라는 제호로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연변의 지역신문으로 간행되어 왔다. 이는 중국 동포 신문 중 가장 큰 일간지이며, 조선족 신문 가운데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향력이 가장 큰 신문이다. 창간 이래로 줄곧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中共延邊朝鮮族自治州委)의 기관지로서 중국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을 보도해온, 정치적 경향성이 명확한 일간지이다. 또한 주로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반영하는 지방뉴스를 보도하여 민족특색이 짙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신문은 모두 8면으로 발행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21104호까지 발행되었다.

『연변일보』를 본고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변일보』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들이 편찬해내는, 조선어로 된 한글신문이다.

둘째, 『연변일보』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기관지로서 중국의 기타 신문들의 문체적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 때문이다.

---

1)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중국에서 가장 큰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일간 신문이다.

2) 『로동신문(勞動新聞)』은 북한의 4대 일간지인 『로동신문(勞動新聞)』, 『민주조선(民主朝鮮)』, 『평양신문(平壤新聞)』, 『로동청년(勞動靑年)』 중 하나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자 가장 권위 있는 언론 매체이다.

셋째, 『연변일보』를 편찬하는 조선족들은 모두 이중언어 화자들로서 모어인 조선어<sup>3)</sup>와 제2언어인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언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넷째, 한국어와 북한어는 현대로 오면서 중국어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인 데 반해 조선어는 중국어 영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조선어로 쓰인 『연변일보』는 옛 조선반도의 한 방언으로서의 자료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중국어의 영향과 간섭을 받고 있는 이중언어 화자들의 언어의 사용 양상과 변화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언어자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제되고 규범화된 문어에서도 중국어와 한국어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고의 분석을 통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1.2. 선행 연구

신문 문체에 대한 선행연구를 상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 신문 문체가 어떤 문체에 속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어’와 ‘문어’, ‘구어체’와 ‘문어체’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장소원(1986)에서는 언어를 ‘언어의 표현수단’과 ‘발화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언어의 표현수단’에 있어서는 ‘음성’과 ‘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두 가지 표현수단에 의해 구성된 언어의 모습을 각각 ‘구어’와 ‘문어’로 구별하였다. ‘발화의 유형’별로 언어를 분류할 때는 ‘어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파악하였는데, 화자가 특정한 청자를 염두에 두고 발화할 경우에는 ‘구어체’로, 화자가 청자를 중립적으로, 즉 불특정의 청자로 표현하는 발화의 유형은 ‘문어체’로 구분하였다. 이 논의는 기존의 연구에서 구별하지 않았던 ‘구어’와 ‘문어’, ‘구어체’와 ‘문어체’를 명확히 구분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구어체’와 ‘문어체’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문법 분야에서 이분되는지를 살피면서 문어체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결어미

---

3) 본고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각각 ‘조선어’, ‘한국어’, ‘북한어’로 구별짓기로 한다.

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기존의 신문 문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신문을 제목, 전문, 본문 부분으로 나누어 어학적 관점으로 문법을 적용시켜 각각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편집기자회(1969)에서는 한글 신문을 대상으로 제목, 활자, 체제, 신문제작용어 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제목에서는 한국 신문 제목의 발달과 아울러 국한문혼용과 혼용의 비율 및 제목에서의 한자와 한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박갑수(1990)에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6개의 한국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 문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신문 기사문의 구성 요소로서의 제목, 전문, 본문의 문체와 기사문의 문장, 어휘, 표현 등을 고찰하였다. 이주행(1990)에서는 신문 기사문의 구조와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신문 기사문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김희진(1997)에서는 한국의 90년대 신문의 문체를 다루었는데, 크게 신문의 문체 분석과 신문 문체의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희진(1997)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작성자가 가장 고심하는 단계가 바로 제목과 서두라는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문체의 유형, 특히 제목과 서두 부분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90년대 한국 신문의 문체는 기사 구조의 형식화, 한자 표기의 감소, 단문화, 단락 짓기, 표현의 객관화 및 다양화라는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 문체의 특성을 표기면, 단어면, 문장면, 표현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박갑수(1998)에서는 신문과 광고의 문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1장은 신문에 대해, 2장은 광고에 대해 다루었으며 3장에서는 신문방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박갑수(1998)에서는 신문 문장 작성이 크게 구조와 문체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중 문체에 초점을 두었다. 논의는 1990년의 6개의 한국 신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검토의 대상에는 기사문의 구성 요소로서의 제목, 전문, 본문의 문체와 기사문의 문장, 어휘, 표현이 포함된다. 김혜영(2007)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 제목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 제목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행된 두 신문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신문 제목이 갖는 어휘, 통사(문장), 표현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어휘적 측면에서는 한자어와 준말, 외래어의 사용 등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고, 통사적 측면에서는 제목의 행수와 길이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또 제목의



종결형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제목을 종결형의 유형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현적 측면에서는 박갑수(1998)의 논의를 참조하여 제목의 표현 유형을 나누고 시대별로 각 유형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문 문체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는 연구도 있었는데 이석주(1990)에서는 신문 기사 문장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신문에 대해 표기의 변천, 어휘의 변천, 문장의 변천, 기사의 변천, 표현의 변천으로 구별하여 고찰하였으며, 또 시대별로 기사문장의 변천과 흐름에 대하여 언급한 후 앞으로의 한국 신문 기사 문장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심재기(1999)에서는 문체론의 개념을 먼저 언급하고 한국어 문체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개화기 문체 부분에서는 신문 문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개화기의 『독립신문』의 국문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정찬(2007)에서는 신문 기사문의 형식이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신문 기사문 형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목, 전문, 본문으로 규정하고 해당 형식을 갖추기까지의 변천 과정을 근대 초기에 발간되었던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각 신문별 기사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구 기사문의 형식의 유입, 기사문 형식의 발달, 제목의 발달, 기사문 양식의 정착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신문 문체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형태, 음운, 통사로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그 중 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신문 문체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홍연숙(1994)에서는 신문으로부터 한 나라의 국민들의 언어 습관, 언어 행위, 언어 생활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신문을 들어, 한국의 신문과 비교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크게 표기와 어휘의 차이, 문장론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먼저 표기면에서 두음법칙, ‘ㄱ’의 표기, 띄어쓰기를 예로 들었고, 어휘적 차이에서는 이음동의어와 동음이의어 그리고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들을 예로 들었다. 어휘 이외에도 속어와 비어, 외래어 표기, 국명과 지명의 표기에서 차이가 있음을 간단히 밝혔다. 문장론에서는 수사법과 문장의 길이, 경어법의 사용을 말하고 있는데 북한의 신문은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신문과는 달리 국민들의 사상성을 높이고 기사에 생동성을 불어넣기 위하여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반복법, 열거법, 과장법, 대구법, 의태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북

한 신문의 전투성, 선동성, 호소성, 투쟁성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장경희(1994)에서는 어휘 유형, 문법 현상, 장르에 따른 문체의 기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어휘 유형에는 방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특수 용어가 포함되는데, 이런 어휘 유형은 서로 다른 언어 사용 상황을 반영하며 독자들에게 서로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문법 현상은 경어법, 시제, 문장 구조, 문장 길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장르 부분에서는 텍스트는 사용 목적의 차이에 따라 법률문, 광고문, 기사문, 논설, 조문 등 다양한 유형에서 문체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제시했다시피 신문 문체의 연구는 주로 신문 제목, 전문, 본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신문 기사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연구도 있었다. 박보연(2007)에서는 18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문 논설을 대상으로, 신문 논설의 문체를 시기별로 고찰하여 문체의 변천 양상을 살폈는데, 대상을 크게 표기와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기면에서는 시기별로 표기문자, 즉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문장 부호의 사용 양상 및 띄어쓰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표현면에서는 단락이 어떻게 구분되어왔는지, 종결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밖에 신문의 문체적 특징을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계량적 방법으로 빈도를 측정하여 신문 문체의 특성을 살피는 연구도 있다. 강범모·김홍규·허명희(2000)에서는 문체를 언어 특성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장르의 상황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규모의 컴퓨터 코퍼스를 기반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 특성의 빈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텍스트 장르와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코퍼스는 문어와 구어를 포함하여 36개의 장르를 망라하였으며, 여기에 근거하여 추출된 80여 개의 언어 특성의 빈도를 다변량/다차원 통계 분석을 진행하여 장르에 따른 문체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언어 특성은 대명사/대용용언, 명사류, 시제와 상, 비서술 서법, 양상, 수동/사동, 장소와 시간, 상태 기술, 부사, 종속절, 담화표지, 조사, 동사부류, 접속사, 구 접속, 문장구조 유형, 축약, 사회적 층위(존비법), 어휘사용 지표, 어휘종류, 부정, 기타 등의 22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 정유진·김일환·강범모·김홍규 공저(2013)를 들 수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빈도를 통한 계량적

연구도 언어와 그 언어가 사용된 텍스트의 특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신문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단어와 형태소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그 사용의 양상을 통계적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문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는 단어는 일반명사의 경우 ‘사람’, 고유명사의 경우 ‘미국’, 동사는 ‘있다’, 형용사는 ‘없다’, 일반부사는 ‘또’, 접속사는 ‘그러나’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신문 문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의 국내 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 동포의 조선어 신문은 상대적으로 깊이 연구되지 못하였는데 중국 동포 신문의 문체에 관한 연구로는 김춘희(2012)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중국 조선족 신문 취재기사문의 문체 연구라는 주제로 중국 조선족이 중국에서 간행되는 한글로 된 4개의 신문들을<sup>4)</sup> 비교하면서 취재 기사문의 문체적 특성을 알아보고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을 밝힘으로써 기사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4개의 신문들을 대상으로 1990년과 2010년의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표제와 전문, 본문의 문체를 한중 수교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 중 『연변일보』의 개관적인 모습을 언급했으나, 초기의 모습과 현재와의 연관성, 신문의 변천 과정, 그리고 한국 신문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연변일보』만의 문체적 특징을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1.3. 연구방법 및 논의의 구성

#### (1) 연구 방법

본고의 대상인 『연변일보』의 문체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연변일보』의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문 제목 중에서 매달 임의로 2부씩 선택하여 수집하였다. 『연변일보』는 창간된 초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큰 역사적 시기에 따라

---

4) 이 논문에서 살펴본 신문들은 각각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료녕조선문보』, 『길림신문』이다.

크게 창립 초창기, 국내해방 전쟁시기(1948. 04 ~ 1949. 09), 사회주의 개조시기(1949. 10 ~ 1956. 12), 사회주의 건설시기(1957. 01 ~ 1966. 04), 문화대혁명시기(1966. 05 ~ 1976. 10), 개혁개방 초기(1978. 12), 현재 등 7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현재 2015년의 신문을 연구자료로 하였으며 신문 기사 제목에서 살펴본 신문들을 날자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2015년 01월 01일, 2015년 01월 30일, 2015년 02월 12일, 2015년 02월 27일
2015년 03월 23일, 2015년 03월 25일, 2015년 04월 14일, 2015년 04월 28일
2015년 05월 27일, 2015년 05월 28일, 2015년 06월 02일, 2015년 06월 11일
2015년 07월 02일, 2015년 07월 16일, 2015년 08월 13일, 2015년 08월 14일
2015년 09월 07일, 2015년 09월 09일, 2015년 10월 08일, 2015년 10월 21일
2015년 11월 02일, 2015년 11월 17일, 2015년 12월 09일, 2015년 12월 23일

신문 기사에서도 광고, 사설, 논평, 소설 등을 제외했으며 순수 보도 중 종합/정치/경제/외신을 중심으로 담았고 이 외에 스포츠도 포함시켰다. 본고에서는 『연변일보』와 함께 같은 날자의 한국의 『조선일보』, 북한의 『로동신문』, 중국의 『인민일보』와 비교를 시도할 것이기에 비교분석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sup>5)</sup> 전문과 본문은 1월부터 12월의 신문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논의의 구성

본고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한국 신문 기사의

5) 박영순(1994: 11)에서는 문체론의 종류를 층위, 시간, 대상, 방법, 성격, 언어 단위별로 구별하였다. 층위면으로는 사회 문체론과 개인 문체론으로 나누고, 시간면으로는 공시 문체론과 통시 문체론으로, 대상으로는 문예문 문체론과 실용문 문체론으로 나누었고 방법으로는 통계 문체론과 심리 문체론, 언어적 문체론으로 구별하였고, 성격적으로는 언어학적 문체론과 문학적 문체론 및 독립적 문체론으로 나누었으며 언어 단위별로는 음운 문체론과 단어 문체론, 문장 문체론, 담화 문체론으로 구별하였다. 박영순(1993)의 문체론 유형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고의 성격을 정리하면, 층위적으로는 사회를 망라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공시적이고, 대상은 실용문 문체론, 방법적으로는 통계 및 언어적 연구이고, 성격상으로는 언어학적 연구이며, 언어 단위는 어휘, 문장, 표현 등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연구가 된다.

구조 및 문체적 특성인데, 여기서는 문체를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만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변일보』의 제목, 전문, 본문의 문체적 특성을 각각 분석할 것이며 제4장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2. 신문 기사의 구성 및 문체적 특성

### 2.1. 신문 기사의 구성

#### 2.1.1. 신문 기사의 뉴스가치

신문 기사는 기사마다 신문지면에서 게재되는 위치나 크기가 서로 다르다. 중요한 기사일수록 선명한 곳에 크게 게재되는데, 이것은 기사가 가지는 뉴스 가치 때문이다<sup>6)</sup>.

기사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내용이 똑같은 기사라도 신문을 읽는 독자가 남녀 성별이나 연령, 지식수준, 직업, 지역 등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기사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영향성, 흥미성 등이 있다<sup>7)</sup>. 시의성은 뉴스에 있어서의 시간적 요소, 즉 언제 사건이 일어났고,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어떤 뉴스에서나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뉴스의 핵심에 해당된다. 저명성은 지위, 업적, 부 또는 널리 알려진 인물, 장소, 사물 및 상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접성은 뉴스 가치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사건의 발생장소가 수용자에게 가까울수록 그 뉴스의 가치는 높아진다. 영향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큰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흥미성은 인간적 흥미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투쟁, 성, 동물 등 요소도 함께 묶인다.

신문 지면의 구성에는 뉴스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변일보』에서도 이러한 뉴스 가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6) 2.1.~2.3.까지의 내용은 최재완(2006), 안종묵(2004), 이건호·정완규(2007), 장호순(2012), 이상우·류창하(1995), 조용철·김진홍·송정민(2003), 한국편집기자협회(2001)를 많이 참조하였다.

7) 이에 대해서는 주로 Mott(1962: 58~64)를 참조하였다.

### 2.1.2. 신문 기사의 구조

신문 기사의 구조는 대체로 ‘역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그리고 ‘변형 역피라미드형’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역피라미드형’이란 제목 밑에 뉴스의 중요한 핵심인 전문이 나오고, 다음으로 중요한 보충사실과 흥미 있는 사실의 세부적인 내용, 즉 본문이 뒤따르는 형식이다. 한국 신문 기사의 전형적인 구조는 ‘역피라미드형’ 구조이다.

두 번째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피라미드형’은 문학적 기사 작성법이라고도 한다. 이 기사작성법은 주로 해설기사나 의견기사에 사용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사소한 부분으로부터 도입하여 흥미를 형성하면서 차츰 중요한 내용을 이끌어 내어 마지막에 그 사건의 클라이맥스, 즉 결론을 제시한다. ‘피라미드형’의 작성 방법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형 역피라미드형’ 구조이다. ‘변형 역피라미드형’은 ‘역피라미드형’과 ‘피라미드형’을 혼합한 형태이다. 이 방식은 뉴스의 핵심부분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에 후행하는 본문은 ‘피라미드형’ 기사 작성법에서와 같이 사실의 연대기적 서술로 구성된다. 중국 신문 기사는 ‘변형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많이 쓰이는 한편, 한국 신문에서는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대표적이다. 『연변일보』에서는 중국 신문의 영향으로 ‘변형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많이 쓰인다.

### 2.1.3. 신문 기사의 형식

신문 기사의 형식에는 신문의 내용과 기사의 종류가 포함된다. 한국, 중국, 북한의 신문을 보면, 한국과 중국의 신문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북한은 내용면에서 한국과 중국 신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총 6면으로 되어 있다. 신문에 큰 활자로 표기되는 일련의 혁명구호와 더불어 1면과 2면은 대체로 김정은과 김정일의 각종 업적을 노래하는 내용, 각종 회의에서의 김정은의 담화와 연설문, 김정은의 외국대표단 접견 기사 및 축전, 김정은이 현지에서

지도와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다. 3면과 4면은 대체로 각종 공장, 기업소와 건설장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업적을 보도하는 내용, 그리고 건설의 성과와 혁신적 업적을 세운 개별적인 모범 인문들의 사례를 보도한 기사이다. 제5면과 제6면은 소위 반제투쟁의 소식과 국제뉴스, 한국 사회에 관한 보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선전기사, 국내외 뉴스에 대한 기타 보충기사 등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의 신문은 북한 로동당의 정치적 노선과 정책선전 및 정치체제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선동성과 선전성의 성향이 짙은 내용을 주로 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기사의 종류를 보면, 한국 신문은 뉴스성 기사, 해설성 기사로 크게 나뉘는데 반해, 중국 신문은 소식, 통신, 인물특사, 조사보고, 채방잡기, 신문평술로 나뉘며 북한 신문은 보도문, 사론설문, 정론문으로 나뉜다.

#### 2.1.4.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

신문 지면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되는 기사는 구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목’, ‘전문’, ‘본문’이다. 여기서 제목과 전문은 모두 기사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목은 단어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반면, 전문은 반드시 문장으로 핵심적 내용을 요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목’, ‘전문’, ‘본문’의 형식은 한국 신문의 보편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식이 정착된 시기는 20년대에 등장한 신문부터이다<sup>8)</sup>. 중국 신문의 경우,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가 한국 신문과 동일하게 ‘제목’, ‘전문’, ‘본문’으로 나뉜다.

8) 이정찬(2007)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정착하게 된 원인에 대해, 앞선 신문들의 발달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기사문 양식에 대한 이해가 발달해왔기 때문이며, 더불어 일본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서구식 기사문 형식이 정착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 2.2. 문어체 문어로서의 신문 문체

문체<sup>9)</sup>는 글의 양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신문 기사도 독특한 신문 문체를 이룬다. 신문 기사의 문장은 TV 뉴스와 함께 모두 방송 문장에 속하지만, TV 뉴스는 청각에 인한 정보전달이 우선시되므로 회화체(會話體)로 쓰여야 하는 반면, 신문 기사의 경우 시각에 의한 정보전달이 우선시되므로 문어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먼저 ‘구어’와 ‘문어’, ‘구어체’와 ‘문어체’의 개념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장소원(1986: 4)에서는 언어는 표현수단을 ‘음성’과 ‘문자’로 나누어, 이들에 의해 구성된 언어의 모습을 각각 ‘구어’와 ‘문어’로 구별하였다. 또 발화의 유형별로 언어를 분류할 때에는 ‘어체(語體)’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방적이든 양방적이든 어떤 통보행위가 이루어질 때 양자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성립하여 이것이 발화에 반영되는 유형은 ‘구어체’라는 용어로, 또 화자가 청자를 중립적으로 대우할 때 표현되는 발화의 유형은 ‘문어체’로 구별하였다<sup>10)</sup>. 즉 우리는 언어를 문체의 종류에 따라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로 구분할 수 있다. 신문 기사는 문어체 문어에 속한다. 구어체와 문어체의 또 다른 차이점은 구어체는 대인적 정보인 반면, 문어체는 기술적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된 발화는 경우에 따라 청자를 상정할 수도 있으나 이때의 청자는 구어체

9) 문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문체의 개념에 대하여 박갑수(1977)에서는 문장 작법과 작품을 빚어내는 양식, 자신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인모(1978)는 작가의 미적 감상에 적합하며 개성이 잘 반영된 일정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하였고, 서정수(1991)에서는 한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선택과 그 배열로 특징지어지는 구성 양식이라고 하였으며 황인태(1992)에서는 어느 특정한 언어 체계가 지니는 다양한 어휘적, 통사적, 의미적, 음운적 표현수단 속에서 얻어진 독특한 언어의 선택이라고 하였고, 박영순(1994)에서는 어느 한 시대의 작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정한 글의 형식적 특징 또는 ‘틀’이라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또 한승희(1994)에서는 특정 주체의 개성에 의해 선택되었던 문(文)의 형식적 특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김홍수(1997)에서는 공통된 핵심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표현 양식이라고 하였으며, 김영자(1998)에서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식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소원(1998)에서 문체는 영어와 불어의 ‘style’, 독일의 ‘stil’에 해당하는 단어로 ‘양식(樣式)’이라 하기도 하는데 글의 문체와 아울러 말체, 즉 화체(話體)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로 문헌을 구성하는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10) ‘구어체’와 ‘문어체’는 ‘구어’와 ‘문어’와는 명칭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띠지만 그 분포와 지칭대상 등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도, 상보적이지도 않은 별개의 개념이다.

에서 상정되는 ‘특정 청자’와는 상반되는 ‘불특정 청자’이다. 신문의 경우, 집필자에게는 신문을 접하게 되는 ‘예상 청자’가 있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신문 기사는 문어체 문어에 속하며 불특정 청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정보를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신문 문체를 각각 신문의 제목, 전문, 본문으로 나누어 그것의 어휘 층위, 표현 층위, 문장 층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3. 소결

제2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2.1은 신문 기사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2에서는 신문 기사의 문어체 문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1의 신문 기사의 구성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문의 뉴스 가치, 신문 기사의 구조, 신문 기사의 형식 및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1.1에서는 신문 기사의 뉴스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한국 신문의 기본요소에 속하는 뉴스의 가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리 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이상성, 인간적 흥미로 보는 관점을 따랐다. 2.1.2에서는 한국 신문의 구조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피라미드형’ 구조, ‘역피라미드형’ 구조, ‘변형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있다. 한국 신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는 ‘역피라미드형’ 구조이고, 『연변일보』는 ‘변형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많이 쓰인다. 2.1.3에서는 신문 기사의 형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국 신문과 중국 신문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북한 신문은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문 기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한국 신문은 뉴스성 기사와 해설성 기사로 나뉘고 중국 신문은 소식, 통신, 인물특사, 조사보고, 채방잡기, 신문평술, 북한 신문은 보도문, 사론설문, 정론문으로 나뉜다. 2.1.4에서는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신문은 크게 ‘제목’, ‘전문’, ‘본문’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제목’은 중국 신문과 북한 신문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가장 크다. 다음 2.2에서는 문어체 문어로서의 신문 문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3. 『연변일보』의 문체적 특성

#### 3.1. 제목

제목 부분에서는 『연변일보』의 제목의 구성과 표기, 표현 층위, 문장 층위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목의 구성과 표기 부분에서는 한국 신문과 『연변일보』의 제목의 유형과 표기면에서의 구별점을 제시하고, 이런 구별점이 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표현 층위에서는 어휘, 문장 부호, 준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장 층위에서는 제목의 종결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1.1. 제목의 구성과 표기

###### 3.1.1.1. 제목의 구성

한국편집기자협회(2001: 56~57)에서는 제목<sup>11)</sup>을 신문이나 신문기사의 앞에 내용을 가리키거나 요약하기 위해 굵은 활자로 붙인 낱말이나 낱말 군으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대표하되 독립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춘 독특한 표현 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소원 외(2002: 40)에서도 제목은 기사의 머리에 놓이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기사의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사 속의 핵심을 짧은 글로 간추려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목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정의하는데, 광의적으로 제목은 “신문 제목뿐만 아니라 기타 문장, 작품, 심지어 기물(器物)과 서적(書籍)의 명칭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협의의 제목은 신문 기사의 제목만을 의미한다.

---

11) 현재 신문 제목은 ‘제목’, ‘표제’, ‘헤드라인’ 등의 여러 용어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한국편집위원회(2001: 56)의 용어를 받아들여 이하에서 이를 ‘제목’으로 부르기로 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제한된 길이 내에 최대한 많은 기사 내용을 담아야 하며 동시에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므로 전문이나 본문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잘 지어진 신문 기사 제목은 제목만으로도 해당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중국과 한국 신문에서 신문 기사 제목의 구성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 신문 기사 제목은 주제목, 부제목, 소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연변일보』에는 인제(引題)와 제요제(提要題)가 있다. 먼저 한국의 신문 제목의 유형을 보면, 주제목은 제목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보이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제목은 주제목의 내용을 부가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소제목은 본문에서 작은 제목을 달아주어 단락의 내용을 더욱 잘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 (1) 내달 20~26일 이산상봉 (주제목)
- 南北 ‘8·25합의’ 첫단추 (주제목)
- 금강산에서 南北 각 100명씩 (부제목)

(조선일보, 2015.09.09.)

『연변일보』의 신문 기사의 제목에는 한국과 구별되는 인제와 제요제가 있다. 세로로 된 제목 형식에서는 인제를 ‘어깨제목(肩題)’, 가로로 된 제목에서는 인제를 ‘눈썹제목(眉題)’이라고 부른다. 또한 주제목의 내용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인제’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제목과 부제목의 위에 나타난다고 하여 ‘상부제(上副題)’라 불리기도 한다(劉路 2002: 205). 『연변일보』에서 인제가 쓰인 양상을 그림으로 첨부하여 보여주었는데, 첫줄의 내용이 인제에 해당된다.

(그림1):

습근평 섬서 상락 산양현 산사태 재해구조 작업에 중요지시

## 인명피해 최대한 줄여야

리극강 재해구조와 관련해 회시

인제는 단일 형식의 제목, 즉 주제목만 나타날 때에는 쓰이지 않으며 복합식 제목이 나타날 경우에 자주 쓰인다. 다시 말해, 인제는 주제목과는 달리 매 기사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제는 부제목처럼 신문 기사의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 기사의 중요성과 무게에 따라 출현 여부가 달라지는 제목 유형이다. 인제가 출현하는 제목의 유형은 <인제+주제목>, <인제+주제목+부제목> 두 가지이다. 『연변일보』의 인제가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인제+주제목>

- (2) 총서기의 간절한 부탁 명심해 연변입쌀의 브랜드꿈 실현 (인제)  
2015 “연변입쌀” 북경추천소개회 개최 (주제목)

(연변일보, 2015.11.02.)

<인제+주제목+부제목>

- (3) 전국정협 신년다과회 마련 (인제)  
습근평 중요연설 발표 (주제목)  
리극강 장덕강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참석 유정성 사회 (부제목)

(연변일보, 2015.01.01.)

(2)에서는 “총서기의 간절한 부탁 명심해 연변입쌀의 브랜드꿈 실현” 부분이 인제에 해당되고 (3)에서는 “전국정협 신년다과회 마련” 부분이 인제에 해당된다. 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다.

- ① 기사의 배경을 제시한다.
- ②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제시한다.
- ③ 사건의 분위기를 돋우어 주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사건의 주제나 의의를 명확히 한다.
- ⑤ 인제는 주제목의 앞부분의 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제목과 함께 사건을 완정하게 서술하며 주제목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 ⑥ 주제목이 허제(虛題)<sup>12)</sup>로 되어 있을 때, 인제는 기사의 핵심이나 요점을 서술하

는 기능을 한다.

⑦ 인제가 나타나는 위치를 보면, 인제는 항상 주제목과 부제목 앞에 나타나며, 주제목보다 작은 활자로 나타난다.

(刘路 2002: 205~208)

이 기준에 따라 다시 (2)와 (3)을 보면, (2)와 (3)의 인제로 표시된 제목은 모두 위치상 주제목의 앞에 나타났으며 실제 신문에서는 주제목보다 작은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2)의 경우 사건의 주제나 의의를 명확히 한다는 ④번 기준에 해당되고, (3)은 사건의 배경을 제시해주는 ①번 기준에 해당된다. 인제, 주제목, 부제목은 각각의 기능이 뚜렷하여 독자들이 신속하게 신문 기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제목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사 내용을 제목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문체적 효과가 있다.

그런데 2015년의 『연변일보』의 제목을 살펴보면 인제의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은 점을 볼 수 있다. 인제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대체로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변화를 보였는데 한중수교 이전, 즉 1990년대 이전에는 인제가 많이 사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사용률이 급락하는 형세를 보여준다. 아래의 표1은 『연변일보』의 창간 초기인 194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연대별로 50개씩 추출하였는데 추출한 신문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40년대: 1948년 04월 01일, 1948년 10월 01일, 1949년 08월 11일
---

12) 중국 신문 제목은 실제(實題)와 허제(虛題)의 구분이 있다. 실제는 서술성 제목을 가리키고 허제는 의논성 제목을 가리킨다. 서술성 제목은 사건의 요점을 서술하는 형식을 말하고 의논성 제목은 서정과 의논을 결합시킨 제목을 말한다.

예: 마음과 감정 갖고 심입해야 (주제목)  
우효봉 주정협 “정협위원 사회구역행”활동서 강조 (부제목)

(연변일보, 2015.08.13.)

이 예에서 주제목은 허제에 해당되고 부제목은 실제에 해당된다. 주제목은 주로 실제로 나타나지만 가끔 이와 같이 허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50년대: 1950년 07월 28일, 1955년 02월 12일, 1959년 03월 08일
60년대: 1960년 06월 10일, 1965년 10월 20일, 1969년 10월 28일
70년대: 1971년 04월 19일, 1976년 06월 27일, 1978년 08월 10일
80년대: 1981년 12월 30일, 1984년 12월 01일, 1988년 12월 13일
90년대: 1990년 02월 15일, 1991년 07월 18일, 1992년 06월 21일
2015년: 2015년 01월 01일, 2015년 01월 30일, 2015년 02월 12일

추출된 신문 제목 구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수치를 조사한 도표를 보여주면 표1과 같다.

(표1):

<주:주제목, 부:부제목, 인:인제>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1990년 부터 한 중 수 교 이전 까 지 <sup>13)</sup>	2015년
주	13	21	27	29	27	26	14
	26%	42%	54%	58%	54%	52%	28%
인+주	10	16	11	16	14	17	0
	20%	32%	22%	32%	28%	34%	0%
주+부	6	5	7	4	6	6	34
	12%	10%	14%	8%	12%	12%	68%
인+주+부	21	8	5	1	3	1	2
	42%	16%	10%	2%	6%	2%	4%

위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변일보』의 신문 제목의 구성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목 유형은 <주제목>, <인제+주제목>, <주제목+부제목>, <인제+주제목+부제목>의 네 가지다.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수치변화는 인제의 출현빈도이다.

13)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전의 『연변일보』 신문 기사 제목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인제가 포함되는 <인제+주제목>은 40년대부터 90년대 초(한중수교 이전)까지 20~30% 정도에 머무르다가 2015년에는 급락하는 형세를 보인다. 또한 창간 초기부터 많이 쓰이던 <인제+주제목+부제목>의 유형도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4%의 비중만을 차지하였다.

『연변일보』의 인제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한국 신문 제목 구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다른 경우로 신문 제목에 쉼표(,)와 줄임표(...)가 나타난다는 점이 있다. 한국 신문에는 인제가 없고 해당 기능을 쉼표나 줄임표 등의 문장 부호가 대체한다. 쉼표의 경우, 앞뒤의 내용을 갈라놓아 대상이나 장소, 배경, 원인 등 중국의 인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줄임표로는 앞뒤 내용을 분리시켜 중국 신문에서의 인제, 주제목, 부제목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분한다. 이에 한국 신문에서는 하나의 주제목만으로도 중국의 인제, 주제목, 부제목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는 문체적 효과가 있다.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도 인제를 발견할 수 있다.

(4) 오만외무성대표단 (인제)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주제목)

(로동신문, 2015.05.27.)

다음으로는 제요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요제는 일명 제시제(提示題), 혹은 강요제(綱要題)라고 하기도 한다. 제요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문 기사 제목 뒤, 기사 내용 전의 위치에 나타난다. 현대 신문에서 제요제는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편폭이 긴 신문 기사나 내용으로 볼 때 비교적 중요한 신문 기사에서 자주 쓰이는 제목의 형식이다. 제요제는 신문 기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점들을 요약하여 독자들에게 기사의 긴 내용을 읽지 않고도 알 수 있게끔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기능은 부제목과 비슷한 점이 많다(劉路 2002: 296~297). 『연변일보』에서 제요제가 사용된 경우는 다음 (5)와 같다.

(5)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 기념대회 북경서 성황리



에 (주제목)

천안문광장서 성대한 열병식 거행 습근평 중요연설 발표하고 열병식참가  
부대 사열 (부제목)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  
전쟁 승리 70돐을 기념하는것은 역사를 명기하고 선렬을 추모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것이다. 평화를 위해 중국은 시종 평화적발  
전의 길로 나아갈것이며 중국인민항일전쟁과 세계반파쇼전쟁 승리의 성과  
를 결연히 수호할것이며 인류를 위해 보다 큰 새로운 기여를 하기 위해  
힘쓸것이다. 우리 모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평화는 반드시 승리하며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역사가 시사해주는 위대한 진리를 명기해  
야 할것이다! (제요제)

습근평은 중국이 군대 30만명을 감원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제요제)

리극강 사회,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강택민 호금도 참석  
(부제목)

65명 외국 지도자, 정부고위급대표,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 전 정계요인  
등 초청에 의해 참석 (부제목)

(이하 본문 후략)

(연변일보, 2015.09.07.)

제요제는 인제 혹은 부제목의 위치에서 인제 혹은 부제목을 대체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5)의 경우처럼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刘路 2002: 297~299). (5)에서  
제요제는 부제목의 뒤에 나타나 기사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중국인민항  
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 기념대회에서 습근평이 한 중요한 발언”을 요  
약하여 본 기사 내용의 요점에 대해 제시하고 설명해줌으로써, 핵심적 내용을 부각  
시켜 강조하는 문체적 효과를 나타낸다.

### 3.1.1.2. 제목의 표기

『연변일보』의 신문 기사 제목은 모두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의 『조선일보』에서는 ‘국한자 혼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 (6) 4개월만에 만난 韓·美·日 “對北압박 더욱 강화” (주제목)  
美·日 새 가이드라인 합의 (부제목)

(조선일보, 2015.05.28.)

(6)에서 한자로 표기된 ‘韓, 美, 日, 對北’ 등은 한국 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표기인데 대체로 한자로 된 부분을 강조하는 데에 쓰인다. 『연변일보』의 신문 제목은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어 한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은 한국 신문 문체와 『연변일보』의 문체를 구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연변일보』의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7) 중국, 조한 리산가족상봉 환영 (주제목)

(연변일보, 2015.10.21.)

한국 신문에서의 ‘국한자 혼용’은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초기의 신문에서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으로 양분되어 쓰이던 것이 ‘한글 전용’ 신문이 폐간된 이후로 ‘국한문 혼용’ 체제를 유지하다가 한문 어순에서 탈피한 ‘국한자 혼용’이 시작되었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신문에서 주요한 단어만 한자로 표기하는 경향이 더욱 우세해지면서 ‘국한자 혼용’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나아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글 전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자를 한글로 병기하기도 하였다<sup>14)</sup>.

『조선일보』의 신문 제목에 ‘국한자 혼용’으로 된 신문 제목의 출현 빈도를 조사

---

14) 박보연(2007: 260~267)을 참조하였다.

하기 위해 2015년 5월 1일~5월 15일까지의 신문 제목을 모두 살펴본 결과, 총 323개의 신문 제목 중 ‘국한자 혼용’으로 된 제목은 모두 279개로 전체 신문 제목의 86.38%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제목은 모두 한글로만 쓰였다. 이렇듯 신문 제목에서 ‘국한자 혼용’의 제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으로부터 『조선일보』에서 여전히 한자 쓰기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변일보』의 경우, 중국어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면에서 한국 신문처럼 한자 쓰기를 고수하는 경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3.1.2. 표현 층위

#### 3.1.2.1. 어휘

어휘의 성격을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에 의해서도 문체의 특성은 드러난다. 고유어로 구성된 문체는 논리적인 글보다는 구체적이고 정감적인 대상을 주제로 한 글에서 사용되어 시, 소설 등의 문학적 작품에서 특정한 효과를 내는 반면, 대부분의 추상 개념은 한자어로 표현되어, 이론의 전개나 논설류의 글은 흔히 한자어 위주의 구성이 문체적 특성으로 지적된다. 외래어는 일상적인 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외래어가 많이 사용된 글은 뚜렷한 문체적 특성을 지닌다(장소원 2009:48~49). 『연변일보』는 신문이라는 특수한 문어체 문어에 속하므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그 언어 환경의 특징상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이나 북한의 신문보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연변일보』의 제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2015년 1~12월, 각 2부씩, 총 24부>

신문기사 제목의 총 개수: 455(개)

어종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계
어절 수	569	2958	196	485	4208
%	13.52%	70.29%	4.66%	11.53%	100%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변일보』의 신문 제목에는 한자어가 70.29%로 압도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유어는 13.52%로 두 번째, 혼종어가 11.53%로 세 번째, 외래어가 4.6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광해(1994: 56)에 언급된 바와 같이, 문체는 어휘의 빈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글은 일반적으로 글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부각되며 함축성이 강하게 느껴져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박갑수(1990: 114)에 따른 한국 신문의 한자어가 62.6%라는 수치와 비교하면 『연변일보』는 70.29%이므로 한국 신문에 비해 정확성이나 논리성이 더 부각되고 함축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며 글의 분위기도 더욱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갑수(1990: 114)에 따르면 한국 신문에서도 한자어가 62.6%에 이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연변일보』는 한자어가 70.29%로 한국 신문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 신문보다 더 가독성이 떨어져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한층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 『연변일보』의 한자어의 출현 양상을 보면, 정치 관련 기사의 제목, 전문, 본문에서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다. 이는 정치 관련 기사에 전문용어와 추상적 개념이 많이 언급되는 것과 연관된다. 박갑수(1990: 117)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 어떤 것이 많이 쓰이는가 하는 문제는 기사문의 난이도와 직접 관련을 가지는데, 이는 구상성 및 추상성과도 관련된 것이기에 선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문에는 추상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빈약하기에 이 부분을 한자어가 주로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 관련 기사에서 한자어의 빈도가 높은 것은 추상 개념을 나타내는 고유어가 적다는 점과 관련된다.

어휘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한자어를 전사한자어와 전자한자어로 구분할 때, 『조선일보』에서는 전사한자어가 많이 쓰이지만 『연변일보』는 전

자한자어가 많이 쓰인다는 점이다. 어휘적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전사(轉寫)한 자어와 전자(轉字)한자어<sup>15)</sup>의 개념부터 제시해보면, 한자어는 전사한자어와 전자한자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사한자어는 귀로 들은 소리의 각 자소를 별개의 문자로 (즉, 1대1 대응이 되도록) 전사하되 가능한 한 본래의 음가에 가깝도록 표기한 한자어를 가리킨다. 즉 중국어를 음차로 받아들인 한자어를 가리킨다. 전자한자어는 눈으로 본 문자(즉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그 의미에 대응시킨 한자어를 가리킨다. ‘新聞’, ‘北京’, ‘習近平’을 전사한자어와 전자한자어로 각각 하나씩 예를 들면 아래 (8, 9)와 같다.

(8) 전사한자어-썬원\*, 베이징, 시진핑<sup>16)</sup>

(9) 전자한자어-신문, 북경, 습근핑

### 3.1.2.2. 문장 부호

신문 제목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로는 썬표와 줄임표가 대표적인데, 이들이 제목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점은 한국 신문의 문체적 특징이다. 썬표는 그 앞의 내용을 주제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줄임표는 앞뒤 내용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의 100개의 제목을 살펴본 결과, 62%의 제목에서 썬표나 줄임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변일보』에서도 한국 신문의 영향으로 신문 기사 제목에서 썬표와 줄임표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15) 전사(轉寫)와 전자(轉字)로 구분하는 내용은 김주원(1992: 57~59, 71)을 참고하였다. 심재기(2011: 41)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가 나타나는데, 중국에서 차용한 말이라도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공부’, ‘학교’와 같이 오래 전에 중국 문어를 통해 유입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은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쿵푸(功夫)’, ‘자장(炸醬)’ 등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6) ‘베이징, 시진핑’ 등 표기는 현지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태도로 삼은, 1986년에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의 반영으로 보인다.

① **쉽표**

한국 신문 제목에서 쉽표는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어에 해당되는 대상이나 사건을 더욱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의도를 갖는다.

- (10) 통일외교, 中과 ‘4개 채널’ 풀가동 준비 (주제목)  
靑안보실장·中외교담당 국무위원 대화 곧 재개할 듯 (부제목)  
朴대통령, 中서 시진핑에 “통일이 中이해에 부합” 강조 (부제목)  
내달 韓美·韓中日정상회담서 ‘北核6자회담 재개’ 논의 (부제목)  
(조선일보, 2015.09.07.)

여기서 ‘통일외교, 朴대통령’은 주제어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쉽표가 앞의 내용을 주제어로 만들어 주는 양상은 『연변일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주제목>의 경우:

- (11) 콜롬비아, 메히꼬행 항공기사 마약 1톤 적발 (주제목)  
(연변일보, 2015.09.09.)

<주제목+부제목>의 경우:

- (12) 유엔, 홍수피해 조선에 175만달러 긴급 투입키로 (주제목)  
여러 지역 홍수피해 심각 (부제목)  
(연변일보, 2015.08.13.)

<인제+주제목+부제목>의 경우:

- (13) 로씨야 극동개발 외국투자 유치 위한 “동방경제포럼” (인제)  
1조 3000억루블 규모 협력협정 체결 (주제목)  
선도개발지역, 올라지보스토크자유항 프로젝트 출범 (부제목)  
푸틴, 투자자들에게 행정절차 간소화와 세제혜택 등 약속 (부제목)  
(연변일보, 2015.09.09.)

(11~13)의 제목에서 쉼표 앞의 ‘폴로비아, 유엔, 선도개발지역, 푸틴’ 등은 쉼표를 통해 주제어임이 부각되거나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연변일보』의 신문 기사 제목에 쉼표가 나타난 것은 전적으로 한국 신문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신문에서는 제목에서 쉼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14) 國家主席習近平發表二〇一五年新年賀詞

(인민일보, 2015.01.01.)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國家主席習近平’은 주제어에 해당되지만 쉼표(,) 등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신문 제목에서 쉼표의 기능은 중국 신문의 인체에 해당된다. 『연변일보』의 경우, 한중수교 이전에는 인체로 대상이나 사건배경, 장소 등등의 일련의 내용을 표시하였지만 한중수교 이후부터는 한국 신문 문체의 영향으로 점차 인체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 부호, 즉 쉼표로 표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연변일보』에서 인체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을 한국 신문의 영향으로 본 것은 현재 중국 신문 『인민일보』 등을 보면 여전히 인체가 잘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변일보』의 인체의 출현 빈도도 한중수교 이후 급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 ② 줄임표

한국 신문 제목에서 줄임표는 제목에서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에 쓰인다. 줄임표는 본래 일정한 단어나 표현 혹은 문장의 일부를 빼거나 줄임으로써 어떤 내용을 암시하거나 여운을 남기는 작용을 하는데, 한국 신문기사의 제목에서는 기본 기능 이외의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아래의 예는 한국의 『조선일보』에서 줄임표가 사용된 경우를 가져온 것이다.

(15) 내년예산 빠듯...일자리엔 16兆 쓴다 (주제목)

올해보다 3%늘린 386兆7000억...증가율 5년만에 최저 (부제목)

고용·복지·국방 늘리고 SOC·산업·中企·에너지는 줄여 (부제목)  
그래도 국가채무 50兆 늘어 645兆... GDP대비 40% 넘어 (부제목)  
(조선일보, 2015.09.09.)

『연변일보』에서도 줄임표를 사용하고 있다.

(16) 라오스서 나루배 전복...초등학생 10명 실종 (주제목)  
(연변일보, 2015.05.28.)

(16)에서는 줄임표를 인용함으로써 “라오스에서 나루배가 전복”한 사건과 그로 인해 초래된 상황을 갈라놓았다. 여기서 줄임표는 정보의 제시를 최소화하여 제목의 정보성을 극대화하는 문체적 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신문 제목을 보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연변일보』에서는 줄임표 남용, 쉼표와 엇갈려 사용되는 점 등의 문제점도 발견된다.

(17) 스키장, 한겨울 명소로 거듭나다...(주제목)  
(연변일보, 2015.01.0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신문 제목에서는 쉼표나 줄임표의 사용이 매우 보편적이다. 반면 『연변일보』의 경우, 1940년대 창간 때부터 1990년대 한중수교 이전까지는 제목에서 쉼표와 줄임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중수교 이후 현재의 제목에서는 쉼표와 줄임표가 쓰이고 있는데, 쉼표는 주 제어로, 줄임표는 앞뒤 내용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연변일보』가 기존에는 제목에서 쉼표와 줄임표를 사용하지 않다가 한국 신문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체 특징을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1.2.3. 준말

『조선일보』나 『연변일보』에서는 모두 준말이 사용된다. 다만 『조선일보』에서는 ‘韓, 美, 與, 野’ 등의 1자 절단어나, ‘한중(韓中), 한미(韓美), 여야(與野)’와 같은 1자 절단어와 다른 1자 절단어가 결합한 2자 절단합성어를 한자로 표기하지만, 『연변일보』에서는 한글로 표기한다.

(18) ㄱ. 전국정협 신년다과회 마련 (주제목)

습근평 중요연설 발표 (부제목)

리극강 장덕강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참석 유정성 사회 (부제목)

(연변일보, 2015.01.01.)

ㄴ. 4개월만에 만난 韓·美·日 “對北압박 더욱 강화” (주제목)

美·日 새 가이드라인 합의 (부제목)

(조선일보, 2015.05.28.)

1920년~1930년대는 한국 신문 제목의 정착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준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자나 한글로 표기된 준말이 사용되었는가 하면 1950년대에는 ‘LST’라는 로마자 약자로 된 준말이 신문 제목에 처음 등장한다<sup>17)</sup>.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에는 준말이 한자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연변일보』와 구별되는 문체적 특징 중 하나이다. 『연변일보』에도 준말이 사용되지만, 그 준말들은 한국 신문처럼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18ㄱ)처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전국정협’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한국 신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준말에는 (18)에 제시된 국가명 이외에도 당과나 기관을 나타내는 ‘與, 野, 靑, 檢, 軍’ 등이 포함된다. 노위(2015)에 따르면 ‘韓, 美, 與, 野’ 등의 한자어는 1자 절단어에 속하는데, 이들은 근거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17) 김혜영(2007: 319)를 참조하였다.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대개 공식적인 문서나 신문 기사, TV 방송의 자막으로만 쓰일 뿐, 일상생활 언어로 홀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성이 있는 1자 형태소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2자어이기에, 한 형태소를 잘라내면 나머지 1자 한자 형태소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신문에서는 제목에서 1자 절단어 외에도 ‘한중(韓中), 한미(韓美), 여야(與野)’ 등의 2자 절단합성어가 나타나는데, 한글로도 쓰이고 한자로도 그대로 표시된다. 이런 절단합성어는 1자 절단어와 다른 1자 절단어가 결합하여 그 복합형인 절단합성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노위(2015)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한자어에서 1자 한자어 형태소는 의존성이 강하지만 다른 1자 한자어와 결합하면 그 의존성이 해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변일보』는 『조선일보』보다 준말의 사용 빈도가 낮다. 『조선일보』의 100개의 제목을 살펴본 결과, 준말이 나타난 제목은 52개이며 종합면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변일보』의 경우, 제목에서 준말이 나타나는 경우는 18개에 해당된다.

(19) 독일-그리스 관계 정상화 (주제목)

량국 정상 갈등 딛고 협력 다짐 (부제목)

메르켈 “이견 있지만 협력할것” (부제목)

(연변일보, 2015.03.25.)

그러므로 『연변일보』에는 (19)와 같이 상대적으로 준말이 잘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조선일보』는 준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 3.1.3. 문장 층위

『연변일보』의 문장 층위의 문체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현대로 오면서 어근 종결형과 명사형 제목 유형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청유형의 제목이 줄어든 것이다. 먼저 『연변일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결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	종결형의 종류							
	연변일보							
	명사	조사	부사	감탄사	어근	연결어 미	종결어 미	총계
개수	616	31	4	0	15	82	35	783
%	78.67%	3.96%	0.51%	0	1.92%	10.47%	4.47%	100%

표3에 제시된 종결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명사 종결:

- (20) ㄱ. 중앙통전부 주요책임자 직무 조정

(연변일보, 2015.01.04.)

- ㄴ. 13일부터 심수시민 향향방문 “주 1회”비자 발급

(연변일보, 2015.04.14.)

② 조사 종결:

- (21) ㄱ. 2015년 군민 새봄맞이 다과회 복경서

(연변일보, 2015.02.12.)

ㄴ. 중로 훈춘-마하린노철도 국제합작운수 동맥으로  
(연변일보, 2015.02.27.)

③ 부사 종결:

(22) ㄱ. 힘과 마음을 합쳐...등근 공과 함께  
(연변일보, 2015.11.02.)

ㄴ. 올시즌 최고 자리에 우뚛  
(연변일보, 2015.11.02.)

④ 어근 종결:

(23) ㄱ. 제10회 동북아박람회서 우리 주 풍성한 성과 이룩  
(연변일보, 2015.09.07.)

ㄴ.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투자유치 성과 뚜렷  
(연변일보, 2015.09.09.)

⑤ 연결어미 종결:

(24) ㄱ. 주제교양 깊이있게 실천하고 인대사업 새 국면 힘써 개척해야  
(연변일보, 2015.05.28.)

ㄴ. 주청소년문화진흥회 총화모임 가져  
(연변일보, 2015.01.01.)

⑥ 종결어미 종결:

(25) ㄱ. 연변에 민족단결의 꽃 활짝 피고 번영발전의 새 악장 울려퍼진다  
(연변일보, 2015.07.16.)

#### ㄴ. 만여명 주자들 장백산기슭 달리다

(연변일보, 2015.09.07.)

주목할 만한 점은 ‘하다’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생략되어 체언, 즉 명사로 종결된 경우와, 또 동작명사, 상태명사가 서술어처럼 쓰인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명사 종결형의 비율이 78.67%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자어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갑수(1998: 30)에서는 명사적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기에 의미의 모호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연변일보』의 신문 제목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3.1.2.1의 표3에서 제시한 어종별 수치 통계에 따르면 『연변일보』의 기사 제목의 종결형에서 명사 종결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신문 제목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과 연관된다. 이에 『연변일보』의 제목은 강한 추상성, 함축성을 띠고 있다. 또한 『연변일보』의 조사 종결 제목에서는 체언에 조사를 붙여 부사어, 목적어로 만들어 끝맺기도 하는데, 반면 제목 내의 다른 명사들은 오히려 조사가 생략 되는 경우가 많다.

(26) 대상건설 쾌속 추진에 힘쓰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담보해야 (주제목)

(연변일보, 2015.05.26.)

(26)에서 조사를 복구하면 “대상건설(의) 쾌속(적인) 추진에 힘쓰고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을) 담보해야”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생략되어 제목이 추상적이고 딱딱하며 어렵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김혜영(2007: 329)에 따르면 2000년대 『조선일보』에서 제목의 종결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전히 명사 종결형이 6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연결어미 종결형, 종결어미 종결형, 조사 종결형, 부사 종결형, 어근 종결형, 감탄사 종결형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종결형의 비중은 『연변일보』의 그것과 동일하나, 『연변일보』에는 감탄사 종결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연변일보』의 제목에서, 조사 종결형에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모두 나타났는데 격조사에는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만 발견되었다. 부사격 조사에는 처소와 변화

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종결어미 종결형의 경우에는 평서형과 의문형, 청유형 등이 두루 나타난다.

『연변일보』 신문 기사 제목의 전체적인 문체적 특징은 명사 종결형의 제목이 많은 것, 연결어미 종결의 제목이 증가했다는 점, 청유형 제목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다. 명사 종결형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연결어미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한 신문 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40년대:	1948년 04월 01일, 1948년 10월 01일, 1949년 08월 11일
50년대:	1955년 02월 12일, 1959년 03월 08일, 1959년 03월 08일
60년대:	1960년 06월 10일, 1965년 10월 20일, 1969년 10월 28일
70년대:	1971년 04월 19일, 1976년 06월 27일, 1978년 08월 10일
80년대:	1981년 12월 30일, 1984년 12월 01일, 1988년 12월 13일
90년대:	1990년 02월 15일, 1991년 07월 18일, 1992년 06월 21일
2015년:	2015년 01월 01일, 2015년 01월 30일, 2015년 02월 12일

연대별로 각각 50개의 제목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중수교 이후에는 명사 종결형과 연결어미 종결형의 증가와 더불어 종결어미 종결형의 제목이 감소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청유형의 제목이다. 연결어미 종결형과 청유형의 제목이 4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조사한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연결어미	2	1	1	3	7	11
%	4%	2%	2%	6%	14%	22%
청유형	2	8	5	3	3	3
%	4%	16%	10%	6%	6%	6%

표4와 같이, 연결어미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청유형의 제목

은 차츰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런 청유형의 제목은 한중수교 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로 본고에서 조사한 2015년의 783개의 제목 중, 연결어미 종결의 제목은 10.47%에 해당되며 과거의 『연변일보』를 참고하여 보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유형의 제목은 모두 5개로 전체 제목의 0.64%를 차지한다. 연결어미 종결형의 제목의 증가와 청유형의 제목의 감소는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대체로 한중수교를 사이에 두고 변화하였다. 그 전의 신문들에서 조사한 결과, 한중수교 이전에는 명사 종결형의 제목과 종결어미 종결형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이 연결어미 종결형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연변일보』에서 40년부터 90년대까지 연대별로 나타난 연결어미 종결형의 제목을 보여주면 아래 (27)~(32)까지이다.

<40년대>

- (27) 중국인민에대한참다운우의 (주제목)  
동북, 쓰련간—개년무역협정체결을경축하며 (부제목)  
 (연변일보, 1949.08.11.)

<50년대>

- (28) 열의를 더욱 북돋우어 약진 또 약진하자 (주제목)  
—3.8 국제 부녀절을 기념하여  
 (연변일보, 1959.03.08.)

<60년대>

- (29) 럽해 심처의 억센 소나무 (주제목)  
—립업 제1선에서 싸우고 있는 훌륭한 선졸군 후 전유 동지에 대하여  
(부제목)  
 (연변일보, 1969.10.28.)

<70년대>

- (30) 사상 및 정치로선 면의 교육을 반드시 잘 틀어쥐어야 한다 (주제목)  
왕청현의 부분적인 생산대대들에서 총결해낸, 로선교육을 심도있게 전개  
함에 있어서의 몇가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부제목)  
(연변일보, 1971.04.19.)

<80년대>

- (31) 화룡현서 (인제)  
전례없는 담배대풍작을 (주제목)  
현있담배공사 종합복무 잘해 (부제목)  
(연변일보, 1988.12.13.)

<90년대>

- (32) 연길복무호텔에서 (인제)  
류행침단에 서지 않고 자기 특색 살려 (주제목)  
(연변일보, 1990.02.15.)

청유형의 제목은 4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연대별로 쓰인 양상을 보여주면 아래  
(33)~(39)와 같다.

<40년대>

- (33) 조선의 대일참전 四주년에 제하여 (인제)  
중국과조선은합작하여태평양의평화를보위하자 (주제목)  
(연변일보, 1949.08.11.)

<50년대>

- (34) 당의 농촌에 있어서의 계급로선을 정확히 관철 집행하자  
(연변일보, 1955.02.12.)



<60년대>

- (35) 분초를 다투어 모두다 모내기 전선의 최전렬에 서자 (인제)  
투도 공사의 도전에 열렬히 응전 (주제목)  
연길현 조양 인민 공사 연길시 하남 인민 공사 15일전으로 벼 ' 모내기를  
끝내고 20일에 환연모내기를 끝내며 제초를 잘한다 (부제목)  
(연변일보, 1960.06.10.)

<70년대>

- (36) 일찍 손을 써서 일찍 계획하여 일찍 성과를 거두자  
(연변일보, 1978.08.10.)

<80년대>

- (37) 인대적능역할 잘 발휘하여 다스리고 정돈하며 개혁의 심화를 담보하자  
(인제)  
주당위 인대사업회의 소집 (주제목)  
회의는 인대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인대사업은 다스리고 정  
돈하며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점을 둘러싸고 진행하며 집법사업과 검사독  
촉사업을 잘할것을 요구 (부제목)  
(연변일보, 1988.12.13.)

<90년대>

- (38) 재해구지원에 적극 뛰어들자 (주제목)  
민정부 부장 최내부 호소 (부제목)  
(연변일보, 1991.07.18 )

비서술 서법의 청유형의 제목은 청자에게 대답 또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청자에게 화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자의 역할이 큰 상황에서 사용된다<sup>18)</sup>. 청

18) 이에 대해서는 강범모·김홍규·허명희(2000: 34)를 참조하였다.

유형의 제목은 『연변일보』의 또 하나의 문체 특징이다.

- (39) 전반 국면 의식을 갖고 마음을 합치며 실무혁신하자 (인제) -청유형  
성정협 11기 3차 회의 폐막 (주제목)  
바이초루 장초량 왕국발 참석 황연명 사회 (부제목)  
(연변일보, 2015.02.12.)

중국의 신문 기사 제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제목은 그 선동성과 선전성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현재 『연변일보』의 청유형의 제목은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연변일보』의 기사 제목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유형의 제목이 감소된 것은 연결어미 ‘-아야/-어야’로 종결된 연결어미 종결형의 제목이 늘어난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40) 중특대화재 발생 단호히 막아야 (주제목)  
공안부 소방국 통지 발부 (부제목)  
(연변일보, 2015.05.28.)

- (41) 한마음한뜻으로 직책 리행 발전 촉진해야 (주제목)  
성 12기 인대 4차 회의에 참석한 우리 주 대표들 ‘정부사업보고’ 분조심의 (부제목)  
(연변일보, 2015.02.12.)

(40, 41)은 『연변일보』에 나타난 연결어미 종결형 제목이다. 이런 제목은 대체로 화행적으로 명령과 청유를 나타낸다. 청유문은 강한 선전성과 선동성, 호소력으로 명령의 의미가 첨가되어 청자들에게 화자의 의도를 따라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조건·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인 ‘-아야/-어야’ 종결형의 제목은 당위성을 나타내어 독자들로 하여금 딱딱하지 않고 다소 완화된 느낌을

준다. 이런 제목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리하며 맹목적으로 호소하는 제목보다 한층 설득력이 있다.

#### 3.1.4. 소결

본 소절에서는 『연변일보』의 신문 제목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목의 구성을 보면, 한국 신문의 제목은 주제목, 부제목과 소제목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연변일보』는 중국 신문의 영향을 받아 인제와 제요제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인제와 제요제는 제목의 기능을 더 세분화하여 신문 제목에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주며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한국 신문보다 더 정제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인제는 한중수교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한국 신문의 영향으로 기사 제목에서 문장 부호가 많이 사용되게 된 것과 연관된다. 『연변일보』의 기사 제목은 중국 신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지만 의외로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 인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러 나라 신문 문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증거이다.

표현적 측면에서 보면, 『연변일보』에는 한국 신문보다 한자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변일보』의 글의 분위기와 난이도에 관여하여 『연변일보』의 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변일보』의 표현면에서의 또 다른 문체적 특징은 한국 신문 제목의 영향으로 신문 제목에서 또 『연변일보』에는 한국 신문처럼 준말이 나타나는데 한국 신문 제목보다 적게 나타나며, 또 한국 신문 제목에서 나타나는 준말은 한자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연변일보』에서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다.

마지막으로, 문장 측면에서 『연변일보』의 제목은 명사형 종결의 제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한자어의 대량적인 사용과 연관되며, 다른 하나는 연결어미 종결형의 제목이 늘어난 반면, 청유형의 제목은 대폭 줄어들었다.

## 3.2. 전문

전문은 제목과 본문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두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전문은 일명 ‘리드’, ‘요약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전문(前文)’이라고 불리는 것은 위치상 본문의 앞에 놓이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고, ‘요약문(要約文)’이라고 함은 전문의 기능상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장소원·양정호 2005: 29). 본고에서는 ‘전문’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전문’은 주제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도자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은 단순한 요약뿐만이 아니라 전체 기사문의 초점과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잘 된 전문은 제목이 이끌어낸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본문까지 이어지게 할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효과적인 전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포함해야 하며,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짧게 쓰는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포함하려면 기자가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보도자료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짧게 기사를 쓰려면 핵심을 파악하고 무엇이 핵심 중의 핵심인지 파악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을 작성한 뒤에는,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육하원칙에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더 간결하게 줄일 내용은 없는지, 내용이 어렵지 않도록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바꿀 필요가 없는지, 문장이 건조하지 않도록 흥미를 유발할 어휘로 바꿀 필요는 없는지, 어순을 바꾸어 보면서 문장의 구조를 조정하여 간단명료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장소원·양정호 2005: 29~31).

전문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른바 단순도입형 전문, 본문 요약형 전문, 결과제시형 전문, 가치판단형 전문 등이 이에 해당된다.

### 3.2.1. 표현 층위

5W1H(육하원칙)은 전문의 전형적인 표현 형식이다. 전문의 표현 형식을 살펴보는 것은 육하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연변일보』의 전문의 표현 형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육하원칙을 이루는 여섯가지 요소가 『연변일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육하원칙을 이루는 요소에는 ‘언제’, ‘누가’,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등이 있다. 따라서 『연변일보』의 전문도 육하원칙 중의 어느 요소가 전문에서 강조되느냐에 따라 ‘누가’전문, ‘언제’전문, ‘어디서’전문, ‘왜’전문, ‘무엇을’전문, ‘어떻게’전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9)</sup> 먼저 『연변일보』의 전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기로 한다.

#### ① ‘누가’ 표출형 전문

(42)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가 20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전국적으로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 도합 1509건을 조사처리했는데 2076명이 처리를 받고 그중 1228명이 당정규률처분을 받았다.

(연변일보, 2015.03.23.)

‘누가’ 표출형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연변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인물의 직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습근평 주석에 대하여 말할 때,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라고 소개하면서 직함을 인물의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직함을 인물의 이름 뒤에 붙인다.

#### ② ‘언제’ 표출형 전문

---

19) 김희진(1997)를 참고하였다.

- (43) 5월 25일 19시 55분경 하남 평정산시 로산현 강락원로인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연변일보, 2015.05.27.)

③ ‘어디서’ 표출형 전문

- (44)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현지시간으로 20일 자살 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137명이 숨지고 345명이 다쳤다고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다.

(연변일보, 2015.03.23.)

④ ‘무엇을’ 표출형 전문

- (45) 투자에 따른 안정성장을 목표로 삼고있는 우리 주에서 대형투자건설공사를 중심으로 민생건설공사와 공업건설공사를 아우르는 투자전략을 시행해 실질적인 추진효과를 얻고 있다.

(연변일보, 2015.10.21.)

⑤ ‘어떻게’ 표출형 전문

- (46) 화룡시의 관광업이 쾌속발전의 궤도에 진입했다. 지난해 연인수로 42만명 관광객들을 접대해 전해에 비해 15% 증가되고 관광수입 2억 9000만원에 달해 전해에 비해 25% 성장하였다.

(연변일보, 2015.01.06.)

⑥ ‘왜’ 표출형 전문

- (47) 네팔 지진대처 재해구조에 대한 중국 정부와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전달

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네팔 지진재해지역에 렌트, 담요, 발전기 등 인민폐로 2000만원어치의 긴급 인도주의물자를 제공하여 네팔의 재해구조 대피사업을 힘껏 도와주기로 했다고 상무부가 26일 밝혔다.

(연변일보, 2015.04.28.)

(42~47)까지의 예들을 보면, 『연변일보』의 전문에서는 대체로 표출하고 싶은 요소를 전문의 맨 앞쪽에 놓거나, 표출하고 싶은 요소의 내용을 기타 내용보다 더 편폭을 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부각시킨다. 『연변일보』에서는 (42~47)에서 제시한 전문처럼 여섯 가지 요소 가운데의 어느 한 가지 내용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대체로 육하원칙을 고르게 잘 지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변일보』의 전문에서 육하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1월~12월까지<sup>20)</sup>의 신문 기사에서 매달 2부씩 선택하여, 전문에 육하원칙의 몇 가지 요소가 자주 출현하는지,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전문에서 나타나는 육하원칙 요소의 수					
유형	2요소	3요소	4요소	5요소	6요소
평균%	3.08%	23.08%	46.67%	22.56%	4.61%

위의 표5를 보면, 『연변일보』의 전문에는 육하원칙에서 4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전문이 46.6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3요소이다. 4요소의 전문 중에서는 <언제+어디에서+누가+무엇을 하였다>의 유형이 가장 많았고, 3요소에서는 <누가+무엇을+어떻게 하였다>의 유형이 가장 많았다.

전문을 신문 기사의 내용별로, 종합면과 국내정치/경제, 외신으로 나누고 어떤 유형의 전문이 가장 많은지 통계한 결과, 종합면에서는 3요소의 <언제+어디+무엇을 하였다>의 전문이 가장 많았으며 국내정치/경제면은 4요소의 <언제+누가+무엇을

20) 앞서 3.1에서 신문기사 제목을 통계할 때 임의로 추출했던 신문 자료들과 일치한다.

어떻게 하였다>가 가장 많고, 5요소의 <언제+누가+어디에서+무엇을+어떻게 하였다>가 그 다음이었으며, 외신은 3요소의 <누가+무엇을+어떻게 하였다>전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 3.2.2. 문장 층위

전문 문장의 길이는 전문에 육하원칙 요소 중 몇 가지가 나타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전문의 내용전달 기능과도 연관된다. 전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으면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데 제한이 있고, 전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일보』와 『연변일보』의 정치, 경제, 외신, 스포츠 등의 신문 기사를 내용별로 각각 추출하여 그 내용별 전문의 평균 음절 수를 조사하였다.

(표6):

조선일보	정치	경제	외신	스포츠
전문의 평균 길이	101.4	74.6	81	79.6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일보』의 전문의 길이는 정치 뉴스의 전문이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는 외신, 스포츠, 경제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연변일보』의 정치, 경제, 외신, 스포츠 등의 신문 기사 전문의 평균 음절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연변일보	정치	경제	외신	스포츠
전문의 평균 길이	137	74.6	66.8	73.2

『연변일보』의 전문의 길이는 정치가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경제, 스포츠, 외신



의 순서로 나타난다. 전문에서 정치의 전문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다른 내용의 기사보다 더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과 많은 정보량을 담아야 하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 뉴스의 전문에는 육하원칙의 4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경제는 4요소, 스포츠는 3요소가 많은 편이고 외신은 3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보면, 『연변일보』의 전문의 평균 길이는 90.4 음절이다. 전문의 길이가 긴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의 문장 길이는 육하원칙의 여러 요소를 많이 반영하는 것과 연관되지만 『연변일보』의 문장이 전반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문장을 길게 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2.3. 소결

이상에서는 전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육하원칙이 『연변일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았다. 육하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알아보려고 신문 기사의 육하원칙의 요소들을 조사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연변일보』에서는 4요소를 포함한 전문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문장 층위에서는 『연변일보』의 전문의 문장의 길이를 살펴보았다. 『연변일보』는 문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다. 특히 문장면에서 문장의 길이가 긴 것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문장 구조와 긴 문장의 길이는 전문에도 반영되어 『연변일보』의 전문은 한국 신문의 전문보다 문장이 길며 이 때문에 가독성이 낮다.

### 3.3. 본문

본문은 제목, 전문 다음의 제일 마지막에 놓이며 신문 기사의 내용을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다. 본문의 가장 일반적인 쓰임 양상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하나는 전문과 본문이 하나로 어우러져 본문만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전문에 이어 본문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문에 이어 본문이 있고 부차적인 부가 설명이 딸린 경우이다. 『연변일보』에 나타나는 본문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전문과 본문이 하나로 어우러진 경우<sup>21)</sup>

- (48) [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보도대변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에 의해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운산이 9일부터 중국공산당대표단을 거느리고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석함과 아울러 조선을 공식우호방문하게 된다고 4일 북경에서 선포했다.

(연변일보, 2015.10.08.)

② 전문에 이어 본문이 있는 경우

- (49) [북경=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10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은 조선과 한국이 새로운 한차례 리산가족상봉행사를 개최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조한 쌍방이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문)

조선과 한국이 20일 새로운 한차례 리산가족상봉행사를 개최한데대한 보도에 대하여 중국측은 어떻게 론평하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관련 보도에 주의를 돌렸다. 중국측은 관련 행사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조한 쌍방이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

21) 이 논문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전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 선진국으로서 중국측은 조선과 한국이 대화와 접촉을 강화하고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며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본문)

(연변일보, 2015.10.21.)

③ 전문에 이어 본문이 있고 또 부차적인 내용으로 부가설명이 있는 경우

(50) [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은 5일 국가중의약관리국에 편지를 보내 중국의 저명한 약학자 도유유의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축하했다. (전문)

리극강은 축하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장기간 우리 나라의 의학연구인원을 포함한 광범한 과학기술사업자들은 말없이 일하고 사심없이 기여하며 단결협력하고 용감히 고봉을 뚫으면서 많은 고수준성적을 이룩했다. 도유유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것은 중국과학기술 번영과 진보의 구현이고 인류건강사업에 대한 중의약의 거대한 기여의 구현이며 우리나라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의 부단한 제고를 충분히 과시했다. 광범한 과학연구인원들이 혁신구동발전전략을 참답게 실시하고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며 과학기술전연을 겨냥하여 난제들을 힘써 공략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하고 혁신형국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새로운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 (본문)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연동은 중국과학기술협회, 국가중의약관리국 책임자들에게 5일 저녁 도유유를 위문함과 아울러 축하를 표시하도록 위탁했다. (부가적 설명)

전국녀성연합회도 이날 축하편지를 보내 도유유에게 축하를 표했으며 광범한 녀성들이 도유유를 따라배울것을 호소했다. (부가적 설명)<sup>22)</sup>

(연변일보, 2015.10.08.)

---

22) 마지막 두 단락의 내용을 '부가적 설명'이라고 본 것은 이 두 단락의 내용이 앞의 본문의 내용과 내용상 밀접하지 않으며, 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더 제시하여도 무방한 내용을 더 언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연변일보』에는 본문의 세 가지 유형 중 (49)과 같이 전문에 이어 본문만 있는 유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점은 『조선일보』도 똑같은 문체적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연변일보』에서는 전문과 본문이 하나로 어우러져 본문만 있는 유형이 외신에서 자주 쓰이는데 특히 외신 중에서도 간추린 뉴스에 자주 출현한다.

이하에서는 크게 어휘적 층위와 표현적 층위, 그리고 문장적 층위로 나누어 『연변일보』의 본문의 문체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어휘 층위에서는 『연변일보』에서 ‘한국어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를 달리 하고 있는 어휘’, ‘한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어휘’, ‘중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어휘’, 『연변일보』의 고유한 문체적 특징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4자어’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표현 층위에서는 문장 부호, 단락의 설정 등을 살펴보고 문장 층위에서는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 3.3.1. 어휘 층위

『연변일보』에서는 한국어와 의미나 형태가 다른 어휘들, 그리고 한국의 신문과 구별되는 4자어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휘층위에서는 『연변일보』의 조선어와 한국어를 비교하여 한국어와의 이철동의어, 동철이의어에 대해 살펴보고, 또 조선어와 중국어를 비교하여 중국어와의 동철이의어에 대해 살펴봄, 더불어 『연변일보』의 ‘4자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3.1.1. 한국어와의 이철동의어

『연변일보』의 조선어를 한국어와 비교해보면 한국어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를 달리 쓰고 있는 어휘들이 있다.

- (51) 바치다-제출하다, 굽인돌이-길모퉁이, 우-위, 기실-사실  
총체적으로-전반적으로, 회보하다-보고하다, 과당-수업

귀속감-소속감, 창신하다-창조하다, 가동하다-시동하다(부팅하다)  
 활동실-주민센터, 피복률-복개율, 포치-지시, 휴가구-리조트  
 총화하다-총결하다, 과학가-과학자

(51)을 살펴보면 한국 신문에서 ‘제출하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연변일보』에서는 ‘바치다’가 사용된다. 여기에서 ‘바치다’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첫째, (신이나 받들어야 할 분에게)어떤 물건을 가지도록 정중하게 내어 놓다. 둘째, 무엇을 위하여 몸과 마음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셋째, 재물이나 세금 및 공납금 같은 것을 내다. 넷째, 공문이나 문서를 제출하다. 다섯째, 어떤 물건을 도로 주거나 돌려보내다. 여섯째, 다른 동사의 ‘-아(-어, -여)’아래에 붙어 뒷사람에게 드린다. ‘바치-’는 한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축소되어 ‘내-, 제출하-’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 조선족들은 그 잔재형으로 다의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sup>23)</sup>. 또 특징적인 어휘로는 ‘과학가’가 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로 쓴다. 한국어에서는 ‘과학자’로 쓰이지만 중국어에서는 ‘科學家’로 사용되는데, 『연변일보』에서는 중국어 영향으로 ‘과학가’로 쓰이고 있다. ‘과학가’의 경우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예에 해당되고, 아래의 예는 한국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를 선택한 경우이다.

(52)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행동으로 중국인민이 각국 인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변일보, 2015.01.01.)

‘동고동락(同苦同樂)’과 ‘동감공고(同甘共苦)’는 각각 한국의 사자성어와 중국의 사자성어에 해당된다. 한국어에서는 ‘동감공고’라는 사자성어가 없고, 대신 같은 의미의 ‘동고동락(同苦同樂)’이 있다. 『연변일보』에서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동고동락’을 사용하고 있다.

『연변일보』의 어휘 중에는 한국어와 비교해볼 때 의미는 같지만 형태를 달리

23) 정의향(2016: 15)을 참고하였다.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 차이는 『연변일보』와 한국 신문과의 문체적 차이를 조성한다. 하나의 어휘적 차이만으로 『연변일보』의 문체인지 한국 신문의 문체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만큼 실로 어휘는 문체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연변일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적 차이를 제외하고도 한국 신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53) 선진을 따라잡다, 군중위신을 높이다, 중시를 불러일으키다, 정황을 회보하다, 발전장대시키다, 비준을 거치다, 고봉을 뚫아오르다

(53)은 『연변일보』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한국 신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자어가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연변일보』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신문에서는 선호하지 않거나 잘 쓰이지 않은 표현들이 많다.

### 3.3.1.2. 한국어와의 동철이의어

『연변일보』의 어휘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비교해볼 때 형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도래’는 명사나 동사로 쓰이는데 대체로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의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도래(到來)’는 시기나 기회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된 ‘다가오다, 오다’의 뜻으로 쓰인다. 중국어의 의미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54)에서는 ‘사람이 오다, 참석하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도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로 볼 수 있다.

(54) 그는 먼저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여러 로전사, 로동지, 로민병, 전선지원모범들에게, 항전렬사가족에게, 애국인사와 항일장령 또는 유가족에게, 여러 래빈과 여러 벗들의 도래에 진지한 환영을 표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승리기념일의 열렬한 축하

를 드렸다.

(연변일보, 2015.09.07.)

같은 뜻의 단어들끼리 서로 선호하는 어휘가 다른가 하면, 같은 형태의 단어가 의미를 조금 달리하고 있거나, 한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어휘가 중국 조선어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이 부단히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연변일보』의 어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3.3.1.3. 중국어와의 동철이의어

『연변일보』의 어휘들을 살펴보면 중국어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sup>24)</sup>.

- (55) 사정(事情)-연유 (연변일보)  
事情-일/사건 (중국어)

(55)를 보면, 『연변일보』에서 ‘사정’은 원인, 연유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이 한자어의 한자 표현인 ‘事情’은 중국어에서 ‘사건, 일’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정’은 『연변일보』와 한국어에서 의미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6) 가장(家長)-남편,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연변일보)  
家長-학부모 (중국어)

『연변일보』에서 ‘가장’은 ‘남편이나 가정, 혹은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뜻하지만, 중국어에서의 가장(家長)은 ‘학부모’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연변일보』의 한자어 중 일부는 중국어와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태평무(2002)에서 그 원인

---

24) 이 예는 태평무(2002)에서 가져왔다.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자는 그 기원이 중국어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그 기본의미는 같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일부 변이를 가져왔고 그 변이된 형태가 다시 복합어로 결합되는 과정에 이차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 해석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한자로 된 단어라도 중국어와 의미의 동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3.1.4. 『연변일보』의 4자어

『연변일보』에는 한국 신문과 달리 어휘면에서 4자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연변일보』의 4자어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① ‘명사+명사’형식을 갖춘 합성어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발견된다. 또한 독립적인 문법지위를 가지고 있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고 분리성이 없는 단어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4자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57) 의법치국(依法治國): 우리는 개혁의 전면 심화와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이 새의 두 날개와 차의 두 바퀴가 되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가 예정대로 달성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연변일보, 2015.01.01.)

송구영신(送舊迎新): 2014년이 저물어가고 2015년이 다가오는 송구영신의 이 시각 나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향향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시행정구 동포, 대만동포, 해외교포 그리고 세계 각국과 각 지역의 벗들에게 새해의 축복을 드린다!

(연변일보, 2015.01.01.)

흥변부민(興邊富民): “흥변부민”은 우리 주 변경지역건설에 중대한 발전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연변일보, 2015.08.13.)

술선수범(率先垂範): 넷째로 지도부의 선출군으로 되어 앞장서 “세가지 엄격, 세가지 실속” 주제교양을 잘하며 앞장서 법에 의해 처사하고 앞장서 럽결자를 하며 앞장서 당과 인민의 감독을 받고 앞장서 깨끗이 일하며 떳떳한 간부가 되고 진정으로 술선수범하며 상급으로 하급을 이끌어야 한다.

(연변일보, 2015.07.01.)

‘의법치국’은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앞의 음절과 뒤의 음절 사이의 의미적 연결이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의 ‘송구영신’이나 ‘변강지역을 흥기시켜 인민을 부강하게 한다’는 의미의 ‘흥변부민’, 그리고 ‘앞장서서 모범이 되다’의 뜻의 ‘술선수범’도 같은 유형이다.

② ‘어근적 단어+어근적 단어’, ‘어근적 단어+단어’, ‘단어+어근적 단어’의 구성으로 된 4자어들이 있다. ‘-하다’나 ‘-되다’와 결합할 수 있는 이른바 어근적 단어가 다른 어근적 단어와 결합하여 4자어를 이룬다.

(58) 관철 실시(貫徹實施): 류운산은 회의에서 습근평총서기가 회의참가 동지들을 회견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해 현당위서기의 중요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긍정했으며 우수한 현당위서기의 선도역할을 발휘하고 질높은 간부대오를 건설할데 대해 간절한 기대를 제기했다면서 우리들은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훌륭히 관철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변일보, 2015.07.01.)

인쇄발부(印刷發布): 일전 중공중앙 조직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관철하고 “세가지 엄격, 세가지 실속” 주제교양을 착실히 추진할데 대하여 요구를 제기했다.

(연변일보, 2015.07.14.)

『연변일보』에서 4음절어가 많이 쓰이는 특징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어에 사자성어가 아닌 4자어가 자주 쓰이는 원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어에서 4글자 형식의 단어는 독립적인 언어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강한 자립성을 띤다.

둘째, 중국의 전통적인 사유의 특징의 하나가 바로 2원대립<sup>25)</sup>인데, 4자어는 똑같이 2원대립이 적용된다. 4자어는 4개의 음절을 대칭적인 관계로 나타내는데, 의미의 반복으로 인해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인상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표현력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중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었다.

셋째, 중국인들은 4자어가 아닌 단어도, 보태거나 떼어내는 방법으로 4자어를 만들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선호한다. 가령 중국어에서 “不盡人意”는 원래 “不盡如人意”의 5자어이지만 4자어로 축약되어 널리 쓰이다가 4자어로 정착된 경우이다<sup>26)</sup>.

통계에 따르면 한국 신문과 달리 『연변일보』에서는 4자어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연변일보』의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신문 기사 총 356개 기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기사 당 4자어는 평균 4개로 나타난다. 내용별로 보면, 정치 내용의 기사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스포츠면에 가장 적게 나타난다. 『연변일보』에서 4자어가 쓰인 양상을 보여주면 아래 (59)와 같다.

(59) 전국정협 신년다과회 마련 (주제목)

습근평 중요연설 발표 (부제목)

리극강 장덕강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참석 유정성 사회 (부제목)

25) 2원대립, 즉 2원대립론을 가리킨다. 태평무(2002)에 따르면 4자어 중에는 2원대립으로 된 4자어가 많은데, 2원대립이란 어떤 사물이나 모두 대립되는 두 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대립되는 두 측면은 또 서로 의존하고 전환하며 포함도 한다는 것이다.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대구는 서로 대응되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짝을 이루어 의미의 표현성을 높이고 사유의 평형감을 잡아 준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치고 이해함에 있어서 정면과 반면의 두 대립되는 측면으로부터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철학적 이치가 깃들어 있다.

26) 吕建军(2015: 33)을 참고하였다.

[북경=신화통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 오전 전국정협 강당에서 신년다과회를 마련했다.

(중략)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시기와 형세가 총체적으로 유리하지만 어려움과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중공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침으로 계속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 개혁의 전면적인 추진,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고 혁신구동을 뚜렷이 하며 위협예방통제를 강화하고 민생보장을 강화하며 “12.5”계획에 확정된 제반 목표와 임무를 제기한내에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항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량안의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고 량안의 한가족처럼 화목하고 중국꿈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것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 발전, 협력, 공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전략을 적극 실시하며 인류의 문명진보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이하 생략)

(연변일보, 2015.01.01.)

### 3.3.2. 표현 층위

#### 3.3.2.1. 문장 부호

신문 기사에서 타인의 말이나 관점을 인용하는 인용절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한국 신문에서는 직접인용을 할 때, 직접인용 표지와 인용동사로 “...고 말했다, ...고 전했다, ...고 덧붙였다, ...고 지적했다, ...고 밝혔다, ...고 언급했다, ...고 알려졌다, ...을 주장하였다” 등의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 된다. 반면 『연변일보』에서는 직접인용 부분에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앞에 “(누구)/(회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지적하였다/표했다”식의 표현이 붙어 간접인용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직접 인용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큰따옴표

를 사용하지 않아 인용된 부분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연변일보』의 신문 기사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큰따옴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60) 중국인민항전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 기념 초대연 북경서 (주제  
목)

습근평 중요연설 리극강 초대연 사회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  
고려 참석 (부제목)

(본문중략)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류력사는 필연코 곡절이 있고 끊임없이 전진할것이다. 력사는 인민의 마음속에 쓰는것이고 력사를 말살해서는 안되며 또 말살하지 못한다. 어제날의 력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쓰는것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제날의 력사를 리탈할것이 아니라 오늘을 파악하고 래일을 개척해야 한다. 력사는 점차적으로 멀어질수 있지만 력사의 계시와 교훈은 승인하나 승인하지 않으나 영원히 그곳에 남게 된다. 당년에 침략전쟁에 용감히 항격했던 나라의 인민이든, 당년에 침략전쟁을 발동했던 나라의 인민이든, 그 년대를 겪었던 사람이든, 그 년대 후에 출생한 사람이든 모두 정확한 력사관을 견지하고 력사의 계시와 교훈을 명기해야 한다.

습근평은 력사에 대한 쓰라린 감지때문에 중국인민은 시종일관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시종일관 호혜공영의 개방전략을 실시하면서 평화공존과 5개 원칙의 토대에서 모든 나라와의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확고부동하게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것이다.

(이하 중략)

(연변일보, 2015.09.07.)

(60)에서 본문의 두 단락의 내용은 모두 직접인용을 한 내용이지만 직접인용의 표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은’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직접인용이나 간접인용을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로 표시하는 한국 신문과 구별된다.

(61) (본문 중략)

하지만 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중단된 건 아니지만 후원금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뭉치돈을 마련한 치과협회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없어진 건 사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의원들의 후원금을 건드리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5.04.28.)

『조선일보』에서는 (61)의 신문 기사처럼 인용된 부분이 큰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다.

### 3.3.2.2. 단락의 설정

단락<sup>27)</sup>이란 몇 개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한국에서는 단락을 시작하기 전 한 칸을 들여 쓰는 경우가 흔한데, 중국의 경우에는 두 칸을 들여 쓰는 것으로 단락을 구분한다. 『연변일보』에서는 단락을 시작 전 한 칸만 들여 쓴다<sup>28)</sup>.

『연변일보』의 단락 구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5년 『연변일보』의 4월 1일~3일까지의 신문기사 30개, 『조선일보』에서는 4월 1일~3일까지의 관련 기사

27) 한국 신문에서 단락 구분은 1920년대 초 이후에 비로소 모든 신문에서 단락이 구분되었고 또한 단락 시작 전에 한자로 一, 二, 三을 붙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고, 단락도 이전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나누어졌다(박보연 2007: 288).

28) 신향식(2009)에 따르면 한국에서 문단 이론을 도입한 지는 약 40여년밖에 안 되며 문단 형식으로 널리 쓰이는 들여쓰기는 1910년대 전후에 도입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문단 개념을 소개하지 않은 채 거의 임의로 사용되었다.

30개를 추출하여, 기사 당 단락 수와 단락별 문장 개수를 각각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표8):

신문별	연변일보	조선일보
기사 당 단락 수	5.13	5.23
단락별 문장 개수	1.94	2.45

표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변일보』와 『조선일보』의 단락과 문장 비율은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일보』는 『연변일보』에 비해 단락별 문장 개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락 설정과 형식면에서도 두 신문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연변일보』에는 1문 1단락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62) 연길 교정들 긍정적 에너지 넘쳐 (주제목)

핵심가치관실천활동 폭넓게 (부제목)

연길시에서 전 시 범위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육성, 실천 활동을 전개, 이에 호응한 도덕모범학교, 도덕모범학급, 도덕모범학생 쟁취활동이 활기 차게 펼쳐지고 있다. (제1단락)

이 시 교육국에 의하면 3월 5일에 활동이 가동된후 여러 학교들에서 여러가지 교양실천활동을 폭 넓게 벌려 교정 곳곳에 애심과 긍정적에너지가 넘치고 있다. (제2단락)

일전에 이 시 제5중학교 1학년 4학급의 김정립, 김천우, 정훈일, 리강 등 4명 학생은 하학도중에 길에서 주은 돈지갑을 하남과출소에 바쳤고 공원소학교의 진화련교원은 신문지상을 통해 백혈병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조선족소학생의 사연을 알고 학용품을 사들고 위문함과 아울러 그 뒤 매일같이 찾아가 공부를 가르치고있으며 중앙소학교 4학년 1학급의

학생들은 권옥단 담임교원의 인솔하에 안도현 북흥소학교, 왕청현 대흥구 소학교의 불우한 소학생들을 찾아 위문하고 연변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참여해 애심을 전달했다. (제3단락)

이 시 교육국 관계자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활동에서 사적이 특출하고 군중들의 찬양이 높은 10개의 도덕모범학교, 30개의 도덕모범학급, 100명의 도덕모범학생(그 중 10명은 도덕모범학생기준병)으로 뽑아 시당위와 시정부의 명의로 표창하는데 “도덕모범학생기준병의 경우 초중입학시에 학교와 학급을 선택할수 있고 시 소속 고중 입학시에는 50점의 장려 점수를 향수할수 있으며 본기 고중생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기간 학비를 시정부에서 부담”하는 등 파격적인 포상이 따르게 된다. (제4단락)

(연변일보, 2015.04.01.)

(62)에서는 전체 기사가 모두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단락은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1문 1단락은 『연변일보』에서 줄곧 존재하였던 형식이다. 한국에도 1문 1단락 형식의 신문 기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단락 의식도 높아짐에 따라 신문 기사에서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긴 문장과 1문 1단락의 형식은 중국 신문 문체의 영향을 받은 것과 연관된다.

둘째, 단락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뜻을 나타내야 하는데, 『연변일보』의 경우 한 단락이 하나의 완결된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63) 연변과 랑조집단 전략적합작협의 체결 (제목)

15일, 랑조집단유한회사와 주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으로 생산추동을 실현하는것과 관련해 연길에서 전략적합작협의체결식을 가졌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부문표가 의식을 사회했다.

리경호주장이 의식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의 세계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현대정보기술의 발전이 급

속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산업은 막강한 산업견인력을 갖고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추동하에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상업모식이 끊임없이 나타나고있고 각종 융합식 혁신이 부단히 생겨나고있다. (이하 중략)

(연변일보, 2015.11.17.)

(63)에서 두 번째 단락의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부문표가 의식을 사회했다.”는 내용은 단독으로 하나의 단락으로 쓰일 만큼의 비중을 갖지 않으며, 앞의 단락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제2단락에 함께 묶이는 것이 정확하다. 이 내용이 한 단락으로 쓰인 원인은 독자들의 눈에 더욱 띄게 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보면 『연변일보』에는 단락 의식이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3.3. 문장 층위

『연변일보』의 문장은 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복잡한 문장구조를 갖는다. 문장의 길이는 한 문장 내의 어절의 수를 가리키는데, 『연변일보』의 문장은 한국 신문과 달리 대단히 길다. 『연변일보』의 문장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원인은 중국어의 영향이다. 한국의 옛 문헌이나 자료들 역시 긴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단문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sup>29)</sup>

신문 문장은 문장의 길이가 짧고, 문장구조는 단순해야 한다<sup>30)</sup>. 박갑수(1988)에 서는 문장의 길이와 가독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up>31)</sup>.

(그림2):

29) 장소원(2007: 32~33)에서는 한국의 옛 문헌에서 보이는 문장의 길이가 길게 표현된 원인으로 언중들이 갖는 인식의 체계, 한국어의 통사 구조, 한문 번역문의 영향 그리고 구어와 비교할 때 문어는 더 장중한 느낌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0) 박갑수(1986)에서는 신문 문장도 방송 문장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신문 문장에 담긴 내용은 1文 1概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짧고 가독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한 문장에 여러 가지 개념이나 사실을 담게 되면 자연히 문장이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는데 이것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였다.

31) 박갑수(1988: 600)를 참조하였다.



단어	이해도
8(및 2 이하)	매우 쉬움
11	쉬움
14	꽤 쉬움
17	보통
21	꽤 어려움
25	어려움
29(및 2 이상)	매우 어려움

『연변일보』의 문장의 길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임의로 기사를 추출하여 그 음절수를 조사하였으며 또 같은 날짜의 『조선일보』의 신문 기사와 비교를 진행하였다.

- (64)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수시전형으로 입학하게 된다. 역대 대입(大入)에서 수시전형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 때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눠 학생을 모집한다.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논술, 면접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점수로 합격생을 가른다.

(조선일보, 2015.05.01.)

(64)의 『조선일보』의 문장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문장의 길이는 짧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다. 이에 비해 『연변일보』의 예를 보자.

- (65) 당의 18차 대표대회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주석인 습근평이 의법치국 전면 추진을 둘러싸고 발표한 일련의 중요론술은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지도적의의를 가진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법치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본질적인 요구와

중요한 보장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견지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며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 건설을 견지하는것이며 과학적 립법을 추진하고 헌법으로 통솔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엄격히 의법행정하고 법치국가를 다그쳐 건설해야 하며 공정사법을 견지하고 인민군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다 공평정의를 느낄수 있게 해야 하며 전민 법치관념을 증강하여 존법수법이 전체 인민의 공동추구와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고 덕재겸비한 높은 자질의 법치대오를 건설해야 하며 전면적으로 의법치국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적인 소수”를 틀어쥐어야 한다. 이 중요론술을 참답게 학습하는것은 전면 의법치국의 중대한 의의를 심각히 리해하고 전면 의법치국의 지도사상, 총적목표, 기본원칙과 총제적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네가지 전면”을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배치의 요구에 따라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변일보, 2015.04.28.)

(6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문장은 명사절과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단문이며, 세 번째 문장은 내포문과 접속문이 모두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 개의 명사절, 4 개의 부사절, 5개의 관형절이 있으며, 13개의 대등으로 이어진 접속문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문장은 2 개의 명사절, 1개의 관형사절이 있으며, 3개의 대등 접속으로 이어진 문장, 1개의 종속 접속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4개의 문장을 살펴보면, 두 번째 문장을 제외한 3개의 문장은 모두 긴 문장에 겹겹이 안기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가독성도 매우 낮다. 특히 문장의 길이가 긴 세 번째 문장의 문장들은 대부분 나열 혹은 순접(順接)의 기능을 지닌 연결 어미 ‘-고’와 ‘-(으)며’, ‘-(으)면서’

로 된 접속문이 많다. 이렇게 긴 문장들은 주어와 술어가 대응이 분명하지 않거나 지시어가 분명하지 않은 등 일련의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변일보』의 문장은 길이뿐만 아니라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박갑수(1998: 183)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문장의 길이는 50자 이내로 쓰고, 일문일개념의 원칙으로 기술하며, 문장의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문을 즐겨 쓰고, 대등절의 반복을 피하고, 수식절화를 피하며, 보문화를 피한다. 그리고 문장의 접속을 피하고 문장 삽입을 피하며 직접인용을 길게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위의 (64, 65)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 표(9,10)과 같다.

(표9):

조선일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문장 구조	복문	단문	복문	복문
음절 수	49	24	32	53

(표10):

연변일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문장 구조	복문	단문	복문	복문
음절 수	106	13	350	152

표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기사의 4개의 문장은 평균 음절수가 39.5개로, 박갑수(1998: 600)에서 나오는 R.Flesh가 제기한 가설에서의 '쉬움'의 이해도에 속한다. 그러므로 한국 신문의 문장은 문장의 길이가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해도는 '보통'에 해당된다<sup>32)</sup>. 그러나 표10의 『연변일보』의 경우, 해당 기사의 4개의 문장은 평균 155.3자로, 한 단어가 대체로 3~5음절로 된다고 가정하면 이해도는 '매우 어려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연변일보』의 신문 기사 문장은 문장의 길이

32) 박갑수(1986)에서는 일본 신문 기사의 문장 길이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신문 기사는 86.1자인데, 일본 뉴스 문장은 대체로 45~50자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신문 기사의 문장은 길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가 길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긴 문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서는 대체로 1문 1단락, 복합문, 긴 수식절, 긴 보문, 대등절의 반복, 긴 문장의 접속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의 기사에 모두 긴 문장이거나 모두 짧은 문장으로 된 것은 좋은 기사문이 아니다. 좋은 기사문은 긴 문장에 짧은 문장을 섞어 조화를 이루어 좋은 효과와 문체를 이루어야 한다<sup>33)</sup>. 『연변일보』의 독자들은 긴 문장으로 인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장을 짧고 구조가 간단한 문장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3.4. 소결

본절에서는 『연변일보』의 본문을 어휘 층위, 표현 층위, 문장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어휘 층위에서는 『연변일보』에서 한국의 『조선일보』, 중국의 『인민일보』와 차이를 나타내는 어휘, 그리고 4자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표현 층위에서는 문장 부호의 사용과 단락의 설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문장 부호를 보면 한국 신문에서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나타나는 반면, 『연변일보』에서는 '(누가)(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말하였다/표했다'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 인용된 부분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단락의 구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직접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 표지인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 인용된 부분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겪는 문제점이 있다. 단락의 구성에 있어서는 『연변일보』는 단락 의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장 층위에서는 주로 문장의 길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연변일보』의 신문기사 문장은 중국어 영향으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고 문장의 길이가 한국 신문보다 길다. 이것은 신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더해준다. 그러므로 『연변일보』의 문장은 앞으로도 구조가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33) 박갑수(1990: 99)에서는 부단한 긴 문장의 사용은 읽기를 힘들게 하며 정력을 소모한다고 하였으며 부단한 짧은 문장의 사용은 통일성도 없이 변동이 많고 숨가쁜 단락이 빚어낸 변덕이라며 다양성은 문장의 길이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지적하였다. 몇 개의 긴 문장 다음에 하나의 짧은 문장은 다양성과 강조를 제공하며 일련의 짧은 문장 뒤의 긴 문장은 휴식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기회를 제공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연변일보』가 이중언어 화자인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출간하는 한글 신문이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이를 대상으로 그 문체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문 기사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또 문체적 특징을 기반으로 신문 기사문의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즉 문체를 문어와 구어로 구분하고, 다시 구어와 문어를 구어체 구어와 구어체 문어, 문어체 구어와 문어체 문어로 구분한다고 할 때, 신문 기사문은 문어체 문어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연변일보』의 문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신문을 제목, 전문, 본문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목의 구성면에서 『연변일보』는 중국 신문의 영향을 받아, 한국 신문은 주제목, 부제목, 소제목과 구별되나 『연변일보』는 이밖에 인제와 제요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연변일보』의 인제는 한국 신문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도 인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중국 신문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국 신문의 제목을 보면 ‘국한자 혼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변일보』의 기사 제목에서는 모두 ‘한글전용’ 표기로 나타난다. 『연변일보』의 제목에는 한자어가 70.29%로 나타나 한국 신문보다도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자어들은 전자한자어와 전사한자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때, 한국의 『조선일보』에서는 전사한자어로 주로 쓰이는 반면, 『연변일보』의 한자어는 전자한자어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또한 『연변일보』에서는 준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 신문은 준말을 많이 사용하며 그 준말들은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연변일보』에서 한국 신문의 영향으로 신문 제목에서 쉽표와 줄임표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도 한 특징인데, 이러한 현상은 한중수교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신문 문체가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문장적 측면을 보면, 『연변일보』에서는 완결된 문장으로 된 제목이 줄어들면서 명사 종결형이 전체 제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고, 청유형의 제목은 줄어들었다. 이 역시 한중수교 이후 한국

신문 문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 부분에서는 주로 육하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는데, 『연변일보』에서는 4요소를 포함한 전문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전문의 문장의 길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연변일보』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구조와 긴 길이의 문장이 전문에서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연변일보』의 전문은 한국 신문의 전문보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본문의 문체적 특징은 크게 어휘 층위, 표현 층위, 문장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변일보』의 어휘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를 달리 쓰고 있는 어휘, 한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를 달리 쓰고 있는 어휘, 중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를 달리 하고 있는 어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연변일보』에는 사자성어가 아닌 4자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4자어의 특징과 선호 원인을 살펴보았다. 표현 층위에서는 문장 부호와 단락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문장 부호를 보면, 『연변일보』에는 직접인용을 하였음에도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인용인 것처럼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인용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워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다소 혼란스럽게 된다. 단락과 관련하여, 『연변일보』의 신문 기사는 단락의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도 1문1단락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변일보』의 문장은 개방적 구성의 문장인 단문보다도 폐쇄적인 문장인 복문이 더 높은 빈도를 보여, 『조선일보』보다 문장이 좀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전체적으로 『연변일보』의 문장은 한국 신문보다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 고 문 헌

###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논문지류>

강범모·김홍규·허명희 공저(2000),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문체, 유형: 컴퓨터와 통계적 기법의 이용』, 태학사.

강상호(1989), 『조선어입말체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강 영(2012), 「문체론 연구에서 보이는 남북한 차이」,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127~143.

강현조(2015), 「근대 초기 매체의 문체 선택 및 분화 양상 연구-신문과 단행본 서적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7~97.

고영근(1987/2010), 『(제3판)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공저(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개관, 음운, 형태, 통사』, 집문당.

국립국어원·MBC 공저(2013), 『보도 가치를 높이는 TV 뉴스 문장 쓰기』, 시대의 창.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광해(1994), 「문체와 어휘」, 박갑수 외 편저, 『국어문체론』, 53~71.

김병원(1987), 「한국 말과 글의 특성 비교」, 『이중언어』 3, 3~22.

김상태(1993), 『문체의 이론과 해석』, 집문당.

- 김완진(1986), 「한국어 문체의 발달」, 이기문 외 편저, 『한국어문의 체문제』, 일지사, 229~254.
- 김용한(1998), 『한자 어소의 의미 기능 연구』, 국학자료원.
- 김인선(1991), 「갑오경장(1894-1896)전후 개화파의 한글 사용」, 『주시경학보』 8, 3~32.
- 김정우(1990), 「번역문에 나타난 국어의 모습」, 『국어생활』 21, 국어연구소, 38~55.
- 김주원(1992), 「14세기 모음추이가설에 대한 검토」, 『언어학』 14, 한국언어학회, 53~74.
- 김창섭(2001),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37,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3~85.
- 김창섭(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김창섭(2013), 「-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 68, 국어학회, 167~188.
- 김춘희(2012), 「중국 조선족 신문 취재기사문의 문체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07), 「표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를 중심으로」, 장소원 외 편저, 『우리 시대의 문체』, 313~339.
- 김홍수(1988), 「언어학적 문체론의 위상과 과제」, 『국어국문학』 100, 63~74.
- 김홍수(1990), 「국어의 통사현상과 문체」, 『강신항선생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강신항선생회갑기념논문집, 533~553.
- 김홍수(1993), 「국어 문체의 통사적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1, 83~101.
- 김홍수(1997), 문체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955~1025.
- 김희진(1997), 『한국 신문의 문체: 1990년대』, 국립국어연구원.
- 남기심(1977),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하여』, 연세교육과학.
-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



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노명희(2014), 「한자어 형성과 기능 단위」,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159~185.

노 위(2015), 「한국어의 2자 한자어의 복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문 용(1990), 「번역과 번역 문화」, 『국어생활』 21, 국어연구소, 14~26.

민현식(1994ㄱ),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84, 113~152.

민현식(1994ㄴ),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37~61.

민현식(1994ㄷ),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2)」, 『국어교육』 85, 101~123.

박갑수(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갑수·이주행·이석주 공저(1990), 『신문 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박보연(2007), 「논설」, 장소원 외 편저, 『우리 시대의 문체』, 월인, 257~290.

박영순(1993), 「문체론의 위상과 체계에 대하여」, 『어문논집』 3, 99~116.

심재기(1999), 『국어 문체 변천사』, 집문당.

심재기·조항범·문금현·조남호·노명희·이선영 공저(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 교양.

안종목(2004), 『신문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왕충의(1996), 「중국 4자어형에 대한 소고」, 『외대논총』 15, 부산외국어대학교, 161~174.

이건호·정완규 공저(2007),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 한국언론재단.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65~84.

이상우·류창하 공저(1995), 『현대신문 제작론: 취재와 편집은 어떻게 하는가』, 나남출판.

이상철(1997), 『신문의 이해』, 박영사.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정찬(2007), 「기사문」, 장소원 외 편저, 『우리 시대의 문체』, 월인, 291~312.

-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공저(2010), 『북한 교육 60년: 형식과 발전, 전망』, 교육과학사.
- 임성규(1989), 「글말과 입말의 문체 분석」, 『국어국문학』 102, 313~333.
- 장경희(1994), 「문체와 의미」, 박갑수 외 편저,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80~99.
- 장소원(1986), 「문법기술에 있어서의 문어체 연구」, 『국어연구』 72.
- 장소원(1998), 「문체」,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 논총』, 태학사, 689~715.
- 장소원(2003), 「TV뉴스 보도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55~285.
- 장소원(2005), 「현대국어와 역사성-문체」, 『국어학』 45, 국어학회, 373~407.
- 장소원(2009), 「문체의 측면에서 본 작문 능력과 문법 능력의 상관성」, 『작문연구』 9, 39~65.
- 장소원·남윤진·이홍식·이윤경(2002), 『말의 세상, 세상의 말』, 월인.
- 장소원·양정호(2005), 『(틀림없이 실리는)보도자료 쓰기』, 커뮤니케이션박스.
- 장소원 외(2007), 『우리 시대의 문체』, 월인.
- 장진한(1990), 「번역과 우리말」, 『국어생활』 21, 국어연구소, 27~37.
- 장호순(2012), 『현대 신문의 이해』, 나남출판.
- 전병선(2004), 『헤드라이닝:신문 제목달기의 원칙과 기술』, 커뮤니케이션박스.
- 정유진·김일환·강범모·김홍규 공저(2013), 『신문의 언어 사용 통계』, 소명.
- 정의향(2016),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에서의 ‘바치-’의 의미 변화 연구」, 『중국학 연구회 학술발표회』, 중국학연구회, 15~29.
- 조규태(1992), 「일제시대의 국한문혼용문 연구」, 『배달말』 17, 배달말학회, 37~66.
- 조용철·김진홍·송정민 공저(2003), 『취재보도론』, 법문사.
- 조지·보이스 외 (1979), 서정우 편역, 『신문의 역사』, 중앙일보: 동양방송.
- 최상철(1996), 『중국조선족 언론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 최석재(2000), 「개화기 시대 이후 단문화의 과정」,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 31~55.

최재완(2006), 『신문,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신문 글쓰기의 이론과 훈련』, 커뮤니케이션북스.

태평무(2002), 「대비언어학적측면으로부터 본 조선한자어의 구조적특성」, 『나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305~319.

한국편집기자협회(2001), 『신문편집』, 한컴닷컴.

한국편집기자회(1969), 『한글 신문 연구』, 한국편집기자회.

홍연숙(1994), 「북한 신문의 문체」, 박갑수 외 편저,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384~400.

홍종선(1996),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7, 33~58.

홍종선(2000), 현대국어 문체의 발달,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 9~30.

황석자(1987), 『현대문체론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冯胜利(1997), 『汉语的韵律、词法与句法』, 北京大学出版社.

吕建军(2015), 「谈谈四字词及其与中小学成语教学的关系」, 语文学刊.

刘路(2002), 『新闻标题论』,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刘永(2008), 「嬗变的轨迹——1978年以来中国报纸新闻文体发展研究」, 复旦大学 博士学位论文.

尹世超(2005), 『标题语法』, 商务印书馆.

张衡国(1989), 『四字语型及其应用』, 中国物资出版社.

王燕(2003), 「新闻语体研究」, 复旦大学 博士学位论文.

彭戴娜(2006), 「新闻标题语法特点研究」, 湘潭大学 硕士学位论文.

彭超丞(2006), 『新闻标题制作』, 中国广播电视出版社.

<中文摘要>

## 『延边日报』新闻文体特征研究

洪雅琳

首尔国立大学 大学院 国语国文学科

『延边日报』（朝鲜语版）是新中国成立以后，在中国创刊的最早的朝鲜语综合性报纸，是中国朝鲜族地区历史最悠久，发行范围最广的报纸。目前为止，韩国学术界对新闻文体的研究都侧重于韩国国内的报纸，对中国朝鲜族的报纸类新闻文体研究很少。从这个意义上『延边日报』是富有极高的研究价值的资料。『延边日报』中的朝鲜语不仅可以视为历史中朝鲜半岛的一种方言，透过『延边日报』还可以看出现如今被视为双语者、拥有汉语和朝鲜语两种母语的朝鲜族的语言现状，而且纵观『延边日报』的几十年的语言的发展和变化，我们可以看出朝鲜族受到的汉语和韩国语的影响程度和未来朝鲜语的语言变化的趋势。

从语言的客观要素来看，中国朝鲜族的朝鲜语受语言环境的影响，汉语的干涉和影响日益变大，相反，汉语对韩国和朝鲜两国的语言影响力却慢慢变小。所以分析三个国家的不同的朝鲜语新闻报纸，我们发现这种变化也呈现在『延边日报』的新闻文体特征之中。本文主要以2015年的『延边日报』为主要研究对象，同时在研究过程中把中国的『人民日报』、韩国的『朝鲜日报』、朝鲜的『劳动新闻』一同与『延边日报』进行比较，试图探究『延边日报』的文体特征。本文，从词汇层面、表现层面和文章层面分别对『延边日报』的新闻标题、前文和本文的文体特征进行了分析。

**关键词：**『延边日报』，新闻报道，文体，比较，词汇，表现，文章

**学号：**2014-25237